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漢字的變化와 漢字音의 機能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金 順 禮

2010年 12 월

漢字的 變化와 漢字音의 機能 研究

指導教授 安 在 哲

金 順 禮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 年 12月

金順禮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李 滢 鎬

委 員 趙 洪 善

委 員 安 在 哲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年 12月

目 次

I. 緒論.....	1
II. 漢字的 變化와 形聲字, 假借字的 增加.....	6
1. 漢字的 變化 過程.....	6
2. 形聲字的 增加.....	16
3. 假借字的 增加.....	22
III. 漢字音의 機能.....	31
1. 異體·同形·同源字 判別.....	31
1) 異體字.....	31
2) 同形字.....	43
3) 同源字.....	51
2. 同聲符異音字의 判別.....	61
3. 分化字의 產生.....	64
1) 引伸 分化字.....	64
2) 假借 分化字.....	69
4. 方言音의 反映.....	73
IV. 結論.....	78
【참고문헌】	82

汉字的演变和汉字音的功能研究

金顺礼

最早的汉字是图画，他的表意性很强。但是在记录和使用语言时表意性有很多局限性，所以汉字开始强化表音功能，结果具有表音功能的假借字和形声字在汉字中所占的比例达到了85~95%。因此有人说汉字是意音文字，也有人说汉字是从表意文字转变成表音文字的过渡期文字。

那么，汉字发展到今天，是以什么方式演变和分化的呢？汉字的外形是以添加、代替、变形、省略的方法而演变的，汉字内部是由引伸和假借而分化的。

初期的汉字字数并不多。随着人类想象力的扩张，人们对字的需要也有所增加，就会用已有的字来代替。例如，解/jiě/的本义是"分开牛的肉和骨头"，引伸为"解开"的意思，后来又引伸为"懈/xiè/"放松"的意思。所以解的本义和引伸义，本字的音和引伸字的音共存，导致了音和义的混乱。因此从解字中分化出懈字来明确音和义。

又例如，耆/qí/的本义是"老人"，因为没有表示"快乐"的字，所以就假借耆用嗜 / shì/来表示"快乐"。由于这样的假借，耆的本义和假借义、本音和假借音共存，为了避免这样的混乱，就从耆字中分化出了嗜字。汉字经过这样的分化和发展，字数逐渐增多了。由于分化字是从本字中分化出来的，所以与本字的义和音有着联系。而这些分化出来的字大体都成为了形声字，因此强化了表音的功能。

可以看出汉字的音与汉字的变化有着很深的关联，所以不能忽略汉字的音。因此本文也对汉字的音的功能进行了研究，得出的结果是汉字具有分辩、产生、反映的功能。

首先，汉字的音是以异体字、同形字、同源字、同声符异音字来分辩的。因为异体字只是字形不同，但是音和义必须要相同，如果音不同就不是异体字。通过字的义和音相比较，可以分辩这偶然出现的同形字，还是引伸而形成的同形字，还是因假借而形成的同形字。也可以分辩出不同的两个字是不是根源相同的同源字。还可以分辩

出声符相同，而与音没有关联的同声符异音字，从而判断出声符上发生了变化。

其次，汉字是为了明确音和义而分化的，所以汉字的音具有产生分化字的功能。最后，从汉字的音可以分辨出是时代音还是地域音，所以也可以判断出汉字的音具有反映时代音和地域音的功能。

汉字的音对汉字的变化和发展具有很重要的作用，所以不能把汉字简单地定义为表意字，而忽视汉字音的功能和重要性。



I. 緒論

漢字를 익히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漢字의 數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漢字의 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增加 하고 있다. 참고로 漢字는 한나라 때 《倉頡篇》에 3,300字가 《說文解字》에는 9,353字, 晉나라 때 呂忱의 《字林》은 12,824字, 梁나라 顧野王之 《玉篇》은 22,726字, 明의 梅膺祚의 《字彙》는 33,179字, 淸代 《康熙字典》에는 42,174字, 현대의 《中文大辭典》은 49,905字로 늘어났으며, 지금 中國의 簡化字와 韓·中·日의 俗字, 奇字, 異體字를 낱개의 개별 文字로 계산할 경우 한자의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¹⁾

漢字는 그 수가 왜 이렇게 많고 또 계속 增加하고 있을까? 그것은 漢字가 表意文字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文字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表音文字와 表意文字로 나눌 수 있다.²⁾ 우리가 쓰는 한글은 形과 音を 갖춘 表音文字이다. 표음문자는 일본어와 같은 音節文字와 한글이나 영어와 같은 音素文字가 있고, 표의문자는 形·音·義를 모두 갖춘 문자로 이집트의 象形文字, 楔形文字, 漢字 등이 있다.

표음문자는 언어를 소리부호로서 기록하는 문자로서 글자 하나하나에는 아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조합되어 하나의 소리로 읽혀질 때 비로소 그 소리와 關係된 意味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단지 몇 개의 글자의 조합만으로도 무수히 많은 어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표의문자는 글자의 자형으로 언어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표의문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하나의 글자로 하나의 어휘를 나타낸다고 할 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字形이 필요하고 또 각 文字가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 文字의 數는 계속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文字의 수가 계속

1) 林東錫 <漢語 聲訓論 研究> 《인문과학논총》 제30집, 1998

2) 표의문자와 표음문자라는 개념은 Taylor(1899)에 의해서이다. Taylor가 한자를 '표의문자'로 분류하였는지는 그의 설을 최초로 중국 학계에 소개한 周有光(1998)에서는 분명히 알 수 없다. Istrin(1965)은 그 자신은 한자를 '表詞문자'라고 분류하고 있지만 문자의 체계를 3종 유형인 '圖畫文字', '表意文字', '表音文字'로 나눌 때 고대 한자를 '표의문자'에 귀속시키고 있다. 전광진, <한자의 성질에 관한 제 학술 탐구>, 중국언어연구, 2001.

하여 늘어난다면 그 文字를 사람들이 모두 익혀서 사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그 文字는 文字로서 가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表意文字는 점차 表音의 기능을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³⁾

漢字 역시 표의문자로서 처음에는 表意의 기능만을 하는 그림문자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형으로 자의를 기록하였는데 문물의 증가와 인간 사고의 확장에 따라 새로운 의미들을 기록할 글자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는 한계에 당착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해 내기 위해 기존문자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假借와 引伸이다.

가차와 인신의 방법은 글자 수 증가를 억제하고 이미 알고 있는 글자를 재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하나의 자형에 여러 음과 義를 갖게 하므로 한자가 표의자라는 특성상 形 · 音 · 義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字音과 字義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글자의 직분을 나누었는데 이로써 형성자가 대량 생산되었다.

형성자는 표의문자로서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표음의 기능을 가진 聲符를 가지고 있기⁴⁾ 때문에 한자의 변화와 발전과정상에서 주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전체 한자에서 차지하는 형성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85~95%까지⁵⁾ 이르고 있다. 여기에 표음의 기능이 가장 두드러진 가차자의 비율까지 합산한다면⁶⁾ 한자를 단순히 표의자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⁷⁾

3) 楔形文字와 聖刻文字는 점차 수많은 어휘를 자유자재로 기록할 수 있는 表音文字로 發展하였다. 李敦柱 《漢字學 總論》 博英社, 1992, 51쪽.

4) 표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즉 자형을 살피서 자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房, 防, 訪은 모두 方이라는 음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형성자이다. 그러나 형성자의 聲符가 음소는 아니므로 이것은 표음문자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5) 中國文字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中國文字는 실로 形聲文字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5만여 字의 中國文字 중에서 거의 95%를 점하고 있다. 秦光豪, <說文解字形聲字結構考>, 중국어문집 제 12편, 1986, 225쪽.

6) 假借字와 形聲字의 比率을 보면 甲骨文 전체 1,225자 중 假借字는 129 字로 10.53%, 形聲字는 334 字로 27.27% 이며, 《六書爻列》 9,475 字 중 假借字는 115 字로 1.21%, 形聲字는 7,697 字로 81.24% 이고, 《六書略》의 24,235 字 중 假借字는 598 字로 2.47%, 形聲字는 21,810 字 90.%로 形聲字가 꾸준히 增加하였다. 李孝定, <漢字的起源與演變論叢>, 聯經出版事業公司, 1986, 136쪽

7) 한자를 표의문자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미국의 Bloomfield(1933)와 독일의 Falkenstein(1936)은 표의라는 용어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고 한자는 중국어의 어휘를 대표하기 때문에 語彙文字라 하였는데 聶鴻音은 이것을 중국어로 옮겨 表詞文字라 하였고, 이탈리아의 Diringer(1948)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한자는 표의문자에서 표음문자로 진행되어가는 過渡文字라 하였고, 姚孝遂는 한자가 초기에는 상형에 기원을 두고 있었지만 실제 사용된 예에서는 자형이나 본의와는 무

表音을 하는 形聲字와 假借字가 꾸준히 증가 하였지만 그 글자들의 음은 글자 수의 증가에 정비례해서 많아지지는 않았다. 즉 形聲字와 假借字가 증가한다고 해서 中國語에 없는 새로운 음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그저 기존의 음이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현재 중국 북경어의 音節 數는 성조 구분 없이 418개이며 意味 변별력을 가진 四聲을 감안한다고 해도 산술적으로 1,600개 정도이다.⁸⁾ 中國語의 古代 音節 數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증가된 글자 수와 현대 音節 數를 비교 했을 때 글자 수는 매우 많이 증가했지만 音節 數는 418개이므로 몇 개의 음으로 많은 수의 글자를 읽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많은 수의 글자가 같은 음으로 읽힌다는 것을 意味한다. 음이 같거나 비슷한 자들 중에는 한자의 변화로 인한 音·義의 상관성을 가진 글자들도 있으며 대개 이런 글자들은 詞義引伸과 관계있는 글자들로서 初文⁹⁾으로 존재하는 글자와 그 초문을 성부로 하여 파생되어진 글자들도 있고 근원이 같은 글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글자들의 관계로써 한자의 변화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인신으로 파생되어진 글자들이 동일 성부를 가지고 있을 때 같은 음이거나 음이 비슷하고 심지어 의미에도 공통점이 있는 것에 반해 어떤 형성자는 같은 성부를 가지고 있지만 의미와 음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이 아닐 것이며 한자가 변화하는 과정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글자들은 가차로 인한 글자이거나, 古今音이 상이하게 변화했거나, 자형이나 자의에 변화가 생기는 등 여러 이유로 말미암은 것들이다.

이렇듯 긴 시간을 지나오며 많은 변화를 거쳐 한자의 자형은 매우 많아졌고 의미는 구체적으로 분화되어 字數는 급증하였다. 이러한 한자의 변화는 한자의 음과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표의성 만으로는 문자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자가 표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관하게 쓰이는 예가 더 많으므로 중국어의 음절을 나타내는 表音文字라 하였으며, 周有光은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의 설을 절충하여 意音文字라 하였다. 그리고 Gelb(1963)은 한자의 書寫 단위가 1어휘-1음절이므로 어휘-음절문자라 하였고, 趙元任은 형태소문자라 하였으며, DeFrancis(1989)는 형태소-음절문자라 하였다. 진광진 <한자의 성질에 관한 제 학설 탐구>

8) 林東錫 <漢語 聲訓論 研究> 《인문과학논총》 제30집, 1998

9) 초문이란 분화자의 상대 개념으로서 문자가 분화되어 나오기 이전의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正에서 征이 분화되어 나왔으므로 正은 征의 초문이다.

한자의 변화 과정을 보면 形·音·義의 삼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고, 비록 한자가 표의자이기는 하나 한자의 음 역시 한자의 변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자의 음은 한자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자의 표의성에만 주의하였기 때문에 한자의 자형과 자의의 관계에 대해 주로 연구를 해왔고, 한자음에 대한 연구는 韓·中·日 한자음 비교연구나 시기별 한자음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한자의 변천 과정을 통한 한자음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表意文字의 音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漢字가 變化해 온 과정 속에서 漢字가 어떠한 방법으로 음과 관계를 맺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漢字의 形·音·義 상호 關係 속에서 한자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는 한자의 변천과 한자음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여 한자의 음이 한자의 변천과정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먼저 2장에서 한자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보되 漢字의 글자 수는 왜 증가해야만 하고, 한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변화하고 분화하여 자수의 증가를 초래하였는지 기존의 연구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漢字의 變化 過程에서 音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表音의 기능이 강화되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러나 한자의 생성부터 지금까지 한자의 形·音·義의 변천사를 모두 포괄해서 전체 한자인 6만자를 모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한자가 변화하고 분화할 때의 대표적인 규칙과 양상을 띤 글자들을 예자로 삼아 漢字의 초기 모습인 갑골문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전체적인 字形과 字義의 變化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許慎의 《說文解字》(이하 《說文》으로 약칭한다)의 해석을 기본으로 하고 《說文》이후에 생성된 글자라서 《說文》에 없는 자는 王力《古漢語字典》을 근거하여 한자의 변천과 분화를 추정할 것이다.

3장에서는 漢字音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먼저 자형을 위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異體字, 同形字, 同源字는 무엇이고 한자의 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자의 음으로 이 자들을 판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또한 동일한 성부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음을 가진 자를 동성부이음자라 하는데 이러한 글자는 표면적으로 성부가 성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淳, 醇, 鎔, 鯨 등은 음이 /chún/¹⁰⁾인데 성부는 享/xiang/으로 성부와 字音에 매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필경 한자의 변화과정에 의한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한자의 음으로 이러한 자들을 선별하여 이러한 원인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한자의 자수의 증가는 글자의 분화와 관계가 있으므로 분화를 크게 인신으로 인한 분화와 가차로 인한 분화로 나누고 해당자의 예를 통해 한자음과의 관계성을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자는 점차 표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므로 한자의 성부에 음이 첨가 되거나 변화할 때는 그 시대와 지역의 음을 반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형성자 성부의 음과 가차자를 통해 한자에 해당 시대나 지역의 음을 반영하고 있는 지 살필 것이다.

10) 위에서 제시하는 音素기호는 現代音이며 한어병음을 사용하기로 한다.

Ⅱ. 漢字의 變化와 形聲字, 假借字의 增加

1. 漢字의 變化 過程

(1) 漢字의 變化 原因

새로운 문물이 增加함에 따라 글자의 수요 또한 增加하였는데 이 글자의 수요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거나 기존의 文字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충족하였다. 초기 漢字의 생성 단계에서는 表意字의 특성에 맞게 事物이나 事의 特徵을 象形化하여 文字를 생성하였는데 이러한 글자들은 文字가 言語를 기록하는 도구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表音性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文字의 수요에 부응하여 文字가 增加 할수록 文字의 字形과 字音, 그리고 意味를 연결하여 익히는 것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表意 文字이지만 表意만의 형식으로 文字를 造字하는 것은 文字의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表意造字의 한계¹¹⁾를 뛰어넘을 造字 방법과 文字의 활용 방법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기존의 文字를 재활용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文字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假借와 引伸이다. 假借는 詞는 있으나 그 詞를 나타낼 字가 없을 때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다른 글자를 빌려서 詞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미 있는 글자의 음과 字形을 사용하여 동일발음을 가진 다른 詞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글자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되니 漢字가 무한히 增加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다. 또한 이미 있는 글자를 재사용하므로 새로 글자를 만들어서 익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다. 이 방면에서만 보면 假借는 매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文字의 활용법이지만 假借된 글자와 假借한

11) 朱駿聲의 통계에 의하면 《說文》에 실린 9,353자의 漢字 중에서도 象形으로 간주되는 字는 364字이고 指事字는 단지 125字 뿐인데 후대에는 指事字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한 會意에 속하는 字는 1167字로 표음의 기능이 없는 상형, 지사, 회의 조자법이 전체 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조자의 한계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박홍수, 《漢字의 表意性과 表音性에 관한 考察》, 言語와 言語學28집, 2001.

글자가 하나의 字形으로 실현되므로 하나의 글자에 여러 意味를 포함(一字多義)하게 되어 假借된 글자의 意味가 불분명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詞를 나타내기 위해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여러 글자를 假借하다 보니 하나의 詞를 나타내는 글자가 여러 개가 되는 현상(一詞多形)이 발생하게 되어 字形과 字音, 字義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차로 인한 글자들의 자음과 자의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글자를 분화하였는데 그 결과 글자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글자들은 가차로 인해 증가하였기 때문에 처음 가차한 글자와 가차로 인해 분화된 글자들은 음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음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 문자를 재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인신인데 引伸이란 의미가 확장되고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초기의 文字가 발생하였을 당시에는 하나의 상징에 하나의 概念만이 속해 있었다.¹²⁾ 中國의 소학가들은 최초의 概念을 本義라 하였는데 許慎은 《說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一字一義, 其義多與其字之形相應, 故謂之本義 (한 글자에는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대부분 글자의 형태와 상응하고 이를 본의라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문물이 다양해지고 인간의 인지능력과 表意 욕구 또한 增加함에 따라 상징과 概念의 일대일 대응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 하나의 글자에 여러 의미를 겸하는 현상(一字多義)이 발생하였다.

본의에 새로 추가된 意味들은 본의와 일련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본의로부터 意味의 연상작용에 의해 意味가 확장(引伸)되어진 결과 생성된 것이다. 의미의 연상은 의미가 관계가 있지만 조금씩 다른 것으로 확장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昏은 본의가 ‘어두운 것’인데 옛날에는 어두울 때 혼인을 하였으므로 昏에 ‘어둡다’는 의미에서 ‘어두울 때 혼인하다’, ‘혼인하다’로 의미가 확장된 引伸義가 추가 되는 것 등이 있다. 이렇게 의미가 인신되어 여러 의미를 한 자형에 가지게 되면 의미에 혼란을 야기하므로 본의와 인신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

12) 文字의 외형적인 면을 기호(name) 또는 상징(symbol)이라고 하고 그 내용적인 면을 意味(sense) 또는 概念(concept)이라고 하는데 초기의 文字가 발생하였을 당시에는 하나의 상징에 하나의 概念만이 속해 있었다. 김해명, <인신의 파생경로에서 본 훈고학의 용도>, 원우론집, 6쪽.

서 昏에서 婚을 과생하였기 때문에 본자인 昏과 과생자인 婚은 의미에도 관계를 가지지만 본래 하나의 글자였으므로 음도 같거나 비슷하다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假借와 引伸은 表意文字에서 表音文字로의 發展過程¹³⁾에서 본다면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로 인한 一字多義현상은 文字의 활용상에 意味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假借字와 被借字의 意味와 引伸된 詞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字形에 變化를 가하여 文字를 分化하였다. 이러한 假借字와 引伸으로 인한 分化字들은 대개 본래 字音을 가지고 있던 글자들에 意味符를 부가한 글자들이기 때문에 分化 후에는 形聲文字가 되어 形聲문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들거나 기존의 글자를 分化시킬 때 방법은 글자의 외형상으로 보았을 때는 첨가, 간화, 변화, 대체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文字發展의 일반적인 과정상에서 보았을 때는 表意字의 表音 機能 強化로 볼 수 있다. 漢字 字形의 變化로 인해 表意字의 象形性은 점차 약화되어져 意味 범주를 나타내는 기호화하였고, 글자의 意味를 구분하고 사용의 편의를 위해 表音 機能을 強化하였다. 이러한 方向으로 漢字는 變化하고 分化하였다.

(2) 漢字의 變化에 대한 諸意見

漢字의 變化過程에 대한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서는 劉翔, 林滢, 裘錫圭의 漢字 變化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규칙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劉翔은 《商周古文字讀本》에서 古漢字 發展 규칙을 '簡化와 繁化', '循化와 訛化', '分化'의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簡化의 주요 상황은 '회화성이 감소되면서 간단한 선으로 變化하고, 중복되는 부분과 부차적인 부분이 제거되는 등 필획을 생략하며, 意味가 가깝거나 모양이 비슷한 편방을 합병하는 것'이고 繁化는 '균형잡힌 형체 구조와 장식을 위한 목적으로 점이나 선을 부가하는 필획

13) 문자의 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이 여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그림文字 - 2단계. 單語文字/表意文字 - 3단계. 楔形文字와 象形文字 - 4단계. 音節文字 - 5단계. 子音 音素文字 - 6단계. 완전한 音素文字. 강범모, 《언어 풀어 쓴 언어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187쪽.

의 부가와 意味와 독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구성요소 義符나 聲符의 부가'가 있다고 하였다.

循化와 訛化는 갑골문에서 소전에 이르는 자형과 자체의 변화에서 말한 것인데, 필획의 간화나 변화, 구성요소의 위치 變化, 편방의 증감이나 대체가 발생하였을 때 자형과 자의가 초기 자형과 연관성을 유지하여 變化한 것을 循化라고 하고, 字形이 글자의 意味와 상관없는 형태로 變化하는 것을 訛化라고 하였다.

分化는 동일한 한 時代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다른 형체(異體)를 지니게 되는 것을 分化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글자의 형체가 무한히 增加하면 言語를 기록하는 機能이 상실되므로 형체 分化를 제한하기 위해 통용자¹⁴⁾를 보급하여 文字의 사회성과 규범성을 강화하는 것을 整化라고 하였다.

林澐은 《古文字研究簡論》에서 漢字의 變化에 대한 주요 규율을 '簡化, 分化, 規範化'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간화는 자형이 전체적으로 간화되는 총체적인 간화와 한 글자의 전체에서 일부분이 제거되는 截除性 간화, 그리고 합체자의 분리된 두 개의 편방의 일부 선이 겹쳐지면서 결합되는 并劃性 간화로 구분하였다.

分化는 사회가 發展함에 따라 言語 기록량이 增加하여 한 글자가 담당하는 어음과 어의의 범위가 커지게 되자 글자의 독음과 意味변별이 어려워졌는데 본래의 字形에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가한 여러 다른 글자를 派生시켜 그 機能의 일부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規範化는 한 글자가 變化 過程에서 다른 형태인 異體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異體를 정리하여 글자마다 고정된 형체를 지니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裘錫圭는 《文字學概要》에서 漢字 變化의 주요한 규율을 '간화와 변화'로 설명하였다. 간화는 고문자 단계에서 '象形 정도가 감소하면서 이루어지는 線化(선화), 글자 부호의 書法 변화로 소전에서 형체가 정형화되면서 이루어지는 筆劃化'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변화는 외형상의 변화와 文字 구조의 변화로 인한 변화로 구분되는데 외형상의 변화는 二, 冫 가 숫자 二와 형체가 비슷하여 上, 下로 變化되는 경우처럼

14) 통용자는 서로 다른 글자가 모종의 상황이나 용법상에서 상호 호환이 가능한 글자를 지칭하며 포괄적으로 동음통용, 동의통용, 고금통용 등을 말한다. 李相機, <古漢語의 通用字에 대한 考察>, 인문과학, 1998.

字形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필획을 부가하는 변화와 𠄎, 𠄏 처럼 서사 습관상 意味 없는 필획이 부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文字의 구조 變化로 인한 변화는 주로 편방의 부가이며 意味나 독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聲符나 義符를 부가하는 것과 聲符나 義符를 부가하여 본래 글자와 다른 새로운 글자로 分化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¹⁵⁾

이상의 세 학자들이 정리한 漢字의 變化 過程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意味와 독음을 명확히 하고 사용상의 편리성을 추구하여 漢字가 變化되었는데, 變化의 方向은 簡化와 繁化이다. 간화하거나 변화할 때의 방법은 첨가, 대체, 변형, 생략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字形을 정리하고 여러 異體로부터 통용자를 선정하여 文字로 사용될 자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용상의 편리성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漢字의 變化 樣相과 方法

① 添加

첨가의 방법은 크게 義符의 첨가와 聲符의 첨가의 두 가지가 있다. 기존 文字에 義符를 첨가해서 意味를 分化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이 방법은 會意자가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形聲字가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새로 만들어진 글자들이 대개는 기존 文字의 音を 그대로 따르거나 그 音과 유사하므로 대부분 形聲字가 되는 경우가 많다. 義符를 첨가하기 이전의 글자와 첨가한 후의 글자와의 關係를 보면 시기적으로는 古今字 關係가 형성될 수 있으며 分化 過程에서 보았을 때는 本字와 後期字 關係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럼 義符 添加, 聲符 添加, 筆劃 添加의 세 부류의 실제 예를 살펴보자.

a. 義符 添加

15) 劉翔, 林滂, 裘錫圭 세 학자의 漢字 變化에 대한 諸論은 김은희 <古漢字 分化 연구> 9쪽~11쪽 재인용.

彳/chì/ 止/zhǐ/ 辵/chuò/

彳은 갑골문으로는 彳 이고 본래 큰 사거리의 길을 나타내는 𠂔 의 오른쪽 부분이 생략된 형태이다. 《說文》에 의하면 小步也。象人脛三屬相連也。丑亦切 /chì/(작은 걸음이다. 사람의 大腿, 小腿, 脚의 세 부분이 연결된 것을 본뻗다)라 하였다. 彳에 意味부인 止를 첨가하여 辵을 만들었는데 갑골문에는

辵 이라 하였고 《說文》에 의하면 乍行乍止也。从彳从止。丑略切 /chuò/(가다가 멈추다 하는 것이다. 彳을 따르고 止를 따른다.)라 하였다.

彳은 원래 네거리의 형상이므로 象形字이고 辵은 彳에 意味부인 止(발의 모습, 가다)를 첨가하여 새로 만든 會意字이다. 두 글자는 '가다'라는 意味上에 관련은 있으나 語音上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로 다른 글자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회의字는 글자의 외형을 살펴보면 의미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음을 알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자 된 자가 증가하면 글자를 익혀 사용하는데 무리가 올 수 있다. 따라서 회의字는 전체 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¹⁶⁾

蕪/gòu/ 辵/chuò/ 邁/gòu/

蕪는 갑골문으로는 蕪 이고 두 마리 물고기가 상하로 만나고 있는 형상을 나타내었다. 《說文》에는 交積材也。象對交之形。古候切/gòu/(나무가 쌓여 있는 것이다. 교차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이라 하였다. 邁는 《說文》에는 邁也。从辵蕪聲。古候切 /gòu/(만나는 것이다. 辵을 따르고 蕪聲이다)이라 하였다.

邁는 갑골문으로는 邁 이다. 蕪에 辵¹⁷⁾를 더하여 意味를 더욱 명확히 한

16) 朱駿聲의 통계에 의하면 《說文解字》에는 9,353字 중에서 會意에 속하는 字는 1167字이고 形聲字는 7,697字이므로 회의字는 약 12%이고 形聲字는 약 82%인데 秦光豪는 <說文解字形聲字結構> 중국어문집 제 12편 225쪽에서 오늘날 한자중 形聲字는 95%에 이른다고 하였으므로 회의字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 '辵'은 辵인데 《說文》에는 乍行乍止也。从彳从止。라 하였다. 즉 蕪에 義符인 彳와 止를 첨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것이다.

허신은 자형으로 본의를 설명하였는데 轟의 자형을 두 마리 물고기가 만나는 것이 아닌, 나무가 쌓인 것이고 교차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자형을 잘 못 이해하였다. 그러나 ‘교차하다’와 ‘만나다’는 두 개가 만나야만 교차할 수 있으므로 의미의 관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轟은 '만나다'라는 意味를 나타내지만 音을 나타내는 표지가 없는 象形字이고, 邁는 轟가 '만나다'라는 意味도 가지고 있지만 /gòu/라는 소리를 나타내기도 하므로 形聲字이다. 轟가 邁보다 먼저 생성되었고 邁는 轟에 의미부 辶를 더해 의미를 명확히 해준 글자이므로 파생관계에서 보면 轟는 邁의 本字이며 시기적으로 보면 古字이고 字形으로 보면 異體字의 관계이다. 따라서 두 자는 음이 /gòu/로 같다.

위와 같이 義符를 첨가하여 會意자나 形聲字를 새로 만들어 내는 방법을 살펴 보았는데 두 방법 모두 繁化의 方向으로 漢字가 變化되었다. 彳에서 辵으로 會意자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방법은 전체 漢字變化過程에서 일부분이고 分化的 결과물은 대체로 義符와 聲符를 모두 지닌 形聲字를 만들어 낸다.

b. 聲符 첨가

鳳 /fèng/

《說文》에는 神鳥也。天老曰：'鳳之象也，鴻前麤後，蛇頸魚尾，鸛頸鴛思，龍文虎背，燕頤雞喙，五色備舉。出於東方君子之國，翱翔四海之外，過崑崙，飲砥柱，濯羽弱水，莫宿風穴。見則天下大安寧。'从鳥凡聲。馮貢切 /fèng/(鳳은 신조이다. 황제의 신하 天老가 말하길 봉황의 모양은 앞은 기리기, 뒤쪽은 기린을 닮았고 뱀과 같은 목, 물고기 같은 꼬리를 가졌다. 황새와 같은 이마, 원앙과 같은 아가미, 용관 같은 줄무늬, 뱀과 같은 등, 제비와 같은 턱, 닭과 같은 입, 오색을 전부 갖추었다. 동방 군자의 국가에서 생겨나 사해 밖으로 날아다니는데 곤륜산에 날아가 황하의 지주산에서 물을 마시며 약수에서 깃털을 씻는다. 그리고 황혼에 이를 때, 바람의 입구에 머무른다. 출현하기만 하면 천하는 평안해진다. 鳥를

따르고 凡聲이다)이라 하였다.

鳳은 갑골문에서는  이라고 하여 봉황의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여기에 聲符인 凡(凡)을 첨가하여  이 되었다. 聲符를 첨가하기 전의  은 봉황의 모습을 본뜬 글자이므로 象形字이고 여기에 凡 聲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은 義符와 聲符가 있는 形聲字이다. 상형자인  은 자형으로 의미를 유추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음을 몰라 유추한 의미가 실제 맞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성부를 첨가한 형성자는 자형으로 의미를 유추하여 파악하고 글자의 음에 대한 정보까지 더해지므로 글자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이렇게 形聲字를 만드는 방법은 자주 사용되었는데 Ⅱ. 2. 形聲字의 增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c. 필획 첨가

女/nǚ/ 母/mǔ/

女는 갑골문에서  이고 《說文》에서는 婦人也。象形。王育說。尼呂切 /nǚ/ (여인이다. 상형인데 王育의 說이다.)이라 하였다. 母는 갑골문으로  이고 《說文》에서는 牧也。从女，象褰子形。一曰象乳子也。莫后切 /mǔ/ (소를 키우는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女를 따르고 아이를 품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일설로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모습이라 한다.)라 하였다.

즉 女는 손을 교차하여 꿰어얹은 모양을 본뜬 자형으로 상형자이고 母는 女에 두 개의 점을 찍어 가슴을 나타내고 가슴의 상징으로 아이를 키우는 어미를 나타낸 상형자이다. 母자에 가슴을 나타내는 두 개의 점은 본래 글자가 아닌 의미 부호 성분이고 음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

② 대체

漢字의 字形 중 일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 또한 주로 意味를 명확히 해주거나 독음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字形이 복잡한 것을 意味가 비슷한 것 중에서 字形이 단순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鳳/fèng/

위의 (1)첨가에서 이미 예로 든 𩇑 𩇒는 본래 봉황을 象形한 象形字에 聲符인 凡자를 첨가하여 만든 글자인데 形聲字로 變化되는 過程에서 봉황을 나타내는 𩇑는 획수가 많고 번잡하였기 때문에 𩇑를 새를 나타내는 鳥자로 대체하였다.

鳥는 봉황을 의미하는 자형이 아니지만 봉황은 새의 일종이므로 의미에 연관성이 있어 대체할 수 있었고 이것은 形聲字의 形符가 義符로 대체되는 것이기도 하다. 鳳는 초기에 상형자에서 소리를 나타내는 성부가 첨가되어 형성자가 되었다. 그런데 형성자의 의부의 자획이 복잡하기 때문에 의미에 연관성이 있으며 비교적 자획이 적은 鳥로 대체한 글자이다. 이로써 하나의 글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할 수 있고, 또한 사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변형

母/mǔ/ 毋/wú/

母는 위의 (1) ③ 필획의 첨가에서 살펴 본 것처럼 女자에 필획을 첨가하여 가슴을 나타내고 意味는 아이를 키우는 어미라는 뜻이다.

毋는 《說文》에서는 止之也。从女，有奸之者。武扶切 /wú/(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女를 따르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다는 뜻이 있다)라 하였다.

즉, 毋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다. 吳大澂은 母와 毋는 갑골문에

서 母와 毋는 字形이 동일하므로 두 자는 서로 같은 글자라 하였다. 또한 이 글자들은 후대에 分化하여 두 개의 자로 나누어졌는데 母의 가운데에 자획을 하나 그어서 두 자를 구별하였다고 하였다.¹⁸⁾ 자형으로 보았을 때는 母의 점 두 개가 세로획으로 변형된 것이다.

大/dà/ 𡗗/nǐ/(逆의 초문)

大는 갑골문으로 인체 사람(성인)의 모습을 그렸다. 《說文》에서 天大, 地大, 人亦大。故大象人形。古文大(他達切)也。凡大之屬皆从大。徒蓋切 /dà/(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사람 또한 큰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크게 그렸다.)라 하였다.

𡗗은 갑골문으로인데 사람이 거꾸로 있는 모습이다. 《說文》에서 不順也。从干下中。𡗗之也。魚戟切 /nǐ/(不順하는 것이다. 干아래에 中이 있는 형상을 따른다. 거스르는 것이다.)라 하였다. 𡗗은 逆의 초문인데 逆은 《說文》에서 迎也。从辵𡗗聲。關東曰逆, 關西曰迎。宜戟切 /nǐ/(맞이하는 것이다. 辵를 따르고 𡗗聲이다. 관동에서는 逆이라하고 관서에서는 迎이라 한다)라 하였다.

大는 아이와 대비되는 뜻의 성인을 뜻하는 글자로 사람의 형상을 본 뜬 글자인데 성인은 크기 때문에 사람의 여러 모습 중에서 정면의 큰 모습을 본떴다. 逆은 본래 𡗗인데 大의 자형을 거꾸로 하여 '거스르다'를 意味한다. 여기에 意味符인 辵을 첨가하였다. 辵과 𡗗 두 글자는 字形을 바로 세운 것과 뒤집은 것의 차이이다. 즉 기존의 글자의 字形에 變化를 주어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④ 생략

姜/jiāng/

姜은 《說文》에서는 神農居姜水, 以爲姓。从女, 羊聲。居良切 /jiāng/(神農이

18)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5, 1795쪽. 재인용.

강수에서 살았으므로 강을 성으로 하였다. 女를 따르고 羊聲이다.)라 하였다. 갑골문의 字形은 𦍋, 𦍋 이다. 갑골문의 字形을 보면 𦍋 과 𦍋 의 두 글자를 합하여 만들었는데 𦍋은 종종 다른 字와 합쳐질 때 아래 부분이 생략된다. 따라서 羊의 아래 부분이 생략된 𦍋 와 𦍋 로 이루어진 글자이다.¹⁹⁾

羊과 女의 두 자형이 합쳐질 때 羊의 字形의 일부가 생략되어 자형이 간단해졌으니 간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漢字의 字形 變化에 대한 일반적인 4 가지 방법 첨가, 대체, 변형, 생략의 예를 간략히 알아보았다. 漢字가 變化하고 分化할 때 간화하거나 변화의 두 가지 方向으로 나타나는데 변화하는 이유는 意味와 독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첨가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간화하는 이유는 사용의 편리함을 추구함이었는데 주로 대체, 생략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形聲字의 增加

위에서 일반적인 漢字의 變化過程과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첨가와 대체이다. 기존의 글자에 義符나 聲符를 첨가하여 形聲字를 만드는 방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漢字를 만들 초기에는 하나의 字形에 하나의 字義와 字音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에 字가 담당하는 音義가 增加하여 意味에 혼란을 가져와서 意味와 독음을 분리하기 위해 글자가 變化하고 分化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 대부분 假借와 引伸으로 인해 一字多義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分化된 字들은 대부분이 形聲字가 되었다. 形聲字는 전체 漢字의 90%정도를 차지하여 혹자는 漢字는 形聲字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따라서 形聲字의 增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裘錫圭는 早期 形聲字와 形聲字 생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 李圃 《甲骨文 文字學》 學林文庫, 1994, 68쪽.

最早的形声字不是直接用意符和音符组成，而是通过在假借字上加注意符或在表意字上加音符而产生的。就是在形声字大量出现之后，直接用音符组成形声字，如清末以来为了翻译西洋自然科学，特别是化学上的某些专门名词，而造'鋅'，'鐳'，'鈾'等形声字的情况，仍然是不多见的。大部分形声字是从已有的表意字和形声字分化出来的，或是由表意字改造而成的。(早期形聲字는 직접 意符와 音符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假借字에 義符를 가하거나 혹은 表意字에 音符를 가하는 것을 통하여 생겨났고, 形聲字가 대량으로 생성된 후에 직접 義符와 音符를 서로 조합하는 形聲字가 생겨났을 것이다. 예컨대 청대 말기 이래 서양의 자연과학 특히 화학의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번역하기 위하여 '鋅(신. 아연(Zn))', '鐳(뢰. 라듐(Ra))', '鈾(유. 우라늄(U))'등의 形聲字를 만들어내는 상황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形聲字는 기존의 表意字와 形聲字로부터 分化되어 나온 것이거나 혹은 表意字에서 改造되어 이루어진 것이다.)²⁰⁾

즉, 早期의 形聲字는 형성의 방법에 의해 造字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表意字를 假借하는 등의 방법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形聲字가 생성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形聲字가 보편적으로 많아진 후에야 형성의 방법으로 形聲字를 造字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文字의 發展 過程에 부합한다. 表意字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音を 나타내는 기호가 등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表意字와 그音を 충분히 활용하고 그것을音を 나타내는 기호로 재활용하여 합체자를 만든 후에 이것을 차츰 기호화 하는 것은 사용의 편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文字發展過程과도 같다.

漢字의 變化 過程을 裘錫圭는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表意字에 聲符를 첨가하는 것. 둘째, 表意字의 일부를 聲符로 대체하는 것. 셋째, 기존 文字에 義符를 첨가하는 것. 넷째, 形聲字의 편방을 개환하는 것이다. 裘錫圭의 분류에 맞는 例字는 다음과 같다.

(1) 表意字에 聲符 첨가

20) 裘錫圭, 《文字學概要》, 商務印書館, 2010, 151쪽

𪗇 /chǐ/ 止/zhǐ/ 齒 /chǐ/

齒는 《說文》에서는 口斷骨也。象口齒之形，止聲。昌里切 /chǐ/(이빨이다. 입과 이빨의 모양을 본떴다. 止성이다)라고 하였다. 갑골문에서는 𪗇로 입과 이의 모습을 그린 상형자이다.

갑골문에서는 치아(앞니)의 형상을 본 뜬 글자로 象形字이지만 《說文》에서는 기존의 상형자에 聲符인 止를 첨가하여 독음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形聲字가 되었다.

𪗇/chǐ/와 齒/chǐ/ 두 자는 의미나 성음에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 단지 음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성부가 증가되었는가의 차이만 가진 같은 자이다. 따라서 두 자는 자형만 다른 異體字 관계이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보면 古今字 관계가 되기도 한다. 齒는 𪗇에서 더욱 발전된 것이므로 齒가 상용된 후 𪗇는 도태되어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2) 表意字의 일부를 聲符로 대체

獸/shòu/ 狩/shòu/

《說文》에서 獸는 守備者。从畀，从犬。舒救切 /shòu/(지키는 것이다. 畀를 따르고 犬을 따른다)라고 하였고, 狩는 火田也。从犬守聲。書究切 /shòu(사냥²¹⁾이다. 犬을 따르고 守聲이다)/라 하였다.

獸는 갑골문에는 𪗇로 單과 犬을 결합하여 '사냥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회의자이다. 單은 사냥할 때 쓰이는 도구를 나타내는 데 춘추전국시기에 單 아래에 口가 부가되어 𪗇가 되었다. 獸가 후에 '사냥하다'의 의미에서 '사냥감, 짐승'이라는 意味로 引伸되어 사냥도구를 나타내는 單 대신 聲符 守를 첨가한 狩가 되

21) 단옥제는 火田은 各 本에 犬田이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화전이란 겨울에 하는 사냥이라 하였다.(火各本作 犬...冬獵爲狩, 火田爲狩) 許慎選.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476쪽

었다. 그래서 獸는 짐승을 나타내고 狩는 사냥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갑골문에는 獸는 보지만 狩는 보이지 않고 《說文》에는 獸와 狩가 모두 존재하며 그 의미는 사냥과 관련이 있어 유사하다. 즉 갑골문에 보이는 獸가 원래 本字인데 이 獸에 여러 인신의미를 포함하게 되자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두 자로 나눌 필요가 있어서 기존의 本字의 일부를 성부로 대체하여 본의를 가진 새로운 자를 만들어 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글자는 본래 하나의 글자였다가 분화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유사하고 음 또한 /shòu/로 같다.

(3) 기존 文字에 義符 첨가

① 假借義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師/shī/ 獅/shī/

師는 《說文》에서는 二千五百人爲師。 从巾从自。 自，四巾，眾意也。 疎夷切 /shī/(2500명의 사람을 師라한다. 巾을 따르고 自를 따른다. 自는 四巾이고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獅는 《說文》에 보이지 않는다.

즉 2500명의 사람의 무리가 師이고 師는 巾을 따르고 自를 따르는 會意자이다. 漢代에는 獅子를 나타내는 獅로 假借하여 쓰였는데 王力 《古漢語字典》에 獅는 疎夷切 /shī/이라²²⁾하며 獅가 문헌에서 師와 獅로 쓰인 예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獅가 師에서 分化되어 나온 것인데 師에 犬을 편방에 첨가하여 師와 獅를 分化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獅는 본래 없던 의미가 새로 들어와 생긴 어휘이므로 글자가 없어 師를 가차하여 사용되다가 분화되었지만 분화되기 이전에는 師에 본래 ‘무리’라는 의미와 가차의인 ‘사자’의 의미를 다 가지게 되어 一字多義 현상이 발생하였고 의미에 혼란을 줄 수가 있으므로 두자는 본의를 나타내는 자와 가차의를 나타내는 자로 분리될 필요가 있었다. 두 자는 음을 위주로 하여 가차하였으므로 두 자는 의미 상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성음은 /shī/로 같다.

22) 위의 책 264쪽, 700쪽.

② 引伸義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取 /qǔ/ 娶/qǔ/

取는 《說文》에서는 捕取也。从又，从耳。《周禮》：'獲者取左耳。' 《司馬法》曰：'載獻職。' 職者耳也。²³⁾ 七庾切 /qǔ/(귀를 포획한 것이다. 又를 따르고 耳를 따른다. 《周禮》에 '이긴 자는 왼쪽 귀를 취하였다'라 하였고 《司馬法》에서는 '賊을 바쳤다. 賊은 베어낸 귀를 말한다.'라 하였다.)라 하였고 娶는 《說文》에 取婦也。从女从取，取亦聲²⁴⁾。 七句切 /qǔ/(부인을 얻는 것이다. 女를 따르고 取를 따른다. 取는 亦聲이다.)라 하였다.

取는 갑골문으로는  이고  (귀, 耳)를  (손, 又)로 잡고 있는 형상이다. 본의는 '취하다. 얻다'인데 후에 아내를 맞는다는 뜻으로 引伸하게 되어 取에 女자를 첨가하여 娶를 分化하였다. 娶는 取에서 의미가 인신되어 分化된 글자이므로 두 글자는 발음이 /qǔ/로 서로 같다.

《古漢語字典》에 凡言 '亦聲', 都是同原字(亦聲은 모두 同源字²⁵⁾)라 하였고 王筠은 娶는 取의 分別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인신되어 의미가 증가된 글자를 의부를 첨가하여 산생된 글자들은 의미를 分別하기 위해 分化된 글자들이고, 이러한 글자들은 서로 의미에도 연관이 있으면서 음에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자들은 본래 근원이 같으므로 동원자 관계이기도 하다. 동원자에 대한 부분은 3장에서 후술하겠다.

③ 본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止/zhǐ/ 趾/zhǐ/

23) 옛날에는 전쟁에서 적의 귀를 베어 그 수를 헤아렸다.
24) 역성은 회의결형성으로, 형성결회의로도 볼 수 있는데 회의자인지 형성자인지로 구분하기가 명확하지가 않다. 역성이라는 이름처럼 의미와 음을 모두 가진 자를 말한다.
25) 동원자, 동원사, 사류, 어근 등 학자마다 명칭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되어 나온 자들을 동원자라 한다.

止는 《說文》에서는 下基也。象艸木出有址，故以止爲足。凡止之屬皆从止。諸市切 /zhǐ/(아래에 있는 근원이다. 초목이 땅을 뚫고 나오는 형상을 본떴다. 그래서 止로써 足を 나타낸다.)라 하였다. 갑골문에서는 자형이 𠄎, 𠄏 로 발의 형상을 본 뜬 글자이다. 趾는 《說文》에 보이지 않는다. 《古漢語字典》에 기록된 止는 鄭玄과 顏師古의 注에 의하면 '止, 足也'라 하였다.²⁶⁾

즉 止는 '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본의이다. 그런데 引伸하여 '정지하다, 기초, 터'의 뜻이 생겼다. 따라서 止에 본의와 인신의를 모두 겸하게 되어 一字多義현상이 발생하자 의미를 명확히 구분해 주기 위해 止에 足을 첨가하여 趾를 분화함으로써 본의를 명확히 하였다.

趾는 諸市切 /zhǐ/인데 趾, 止, 址, 隄는 모두 같은 字이고, 趾, 址, 隄 모두 止의 여러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나온 후기 分化字이다. 分化 후에 止는 정지 금지의 추상적인 意味로 사용되었고, 趾는 '발가락, 발'의 본의를 나타내기 위해 분화된 자이므로 추상적인 意味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위의 趾, 止, 址, 隄는 모두 같은 글자이었다가 분화 된 것이므로 모두 음이 /zhǐ/로 똑 같다.

(4) 形聲字의 편방을 개환

振/zhèn/ 賑/zhèn/

振은 《說文》에서 舉救也。从手，辰聲。一曰：奮也。章刃切 /zhèn/ (도와주는 것이다. 手를 따르고 辰聲이다. '분기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 하였고, 賑은 《說文》에 富也。从貝辰聲。之忍切 /zhèn/ (富이다. 貝를 따르고 辰聲이다)라 하였다.

즉 振에 '구원하다. 분기하다'의 뜻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振의 扌를 貝로 바꾸어 구휼하다는 뜻을 가진 賑字를 分化 시킨 것을 알 수 있다. 賑은 《說文》에서는 从貝辰聲로 보았으나 賑은 음이 之忍切/zhèn/이고 辰은 植鄰切/chén/이므로

26) 위의 책 542쪽, 1352쪽.

从貝辰聲의 형성자라기 보다는 从貝振聲의 형성자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賑은 본래 振에서 分化하여 나온 것이므로 从貝振省聲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振/zhèn/과 賑/zhèn/은 두 글자의 음이 같다.

3. 假借字의 增加

漢字의 시작이 象形과 指事를 기본으로 하는 表意字였기 때문에 表意字의 한 계로 인한 假借현상이 당연한 것임은 앞서 이미 언급하였다. 假借는은 갑골문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²⁷⁾인데 象形字와 指事자가 더 이상 增加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사고가 발달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 새로운 문물과 概念이 유입이 되고 그에 따라 詞가 增加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면 漢字의 글자 수는 지금의 6만이 아니라 그 수 자체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增加하게 되어 더 이상 文字로서의 機能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假借는 다행히 기존의 文字 중에서 음과 關係있는 字로 대체할 수 있어 글자 수 增加를 억제하는 機能도 하고 있으며 이러한 假借字는 字義 보다는 字音を 위주로 한다는 의미에서 언어를 기록하는 문자로서의 기능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가차자의 증가는 漢字를 단순한 表意文字에서 벗어나 表音 機能 強化를 촉진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차자는 형성자로 변화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생성된 形聲字는 漢字의 表音, 表意 機能을 모두 갖추고 있어 漢字를 意音文字로 전환시켜 漢字의 과학성을 제고 시켰다.

가차는 한자의 변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가차에 대해 深度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가차는 무엇이고 가차자가 발생하는 이유와 가차자가 한자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증가하였는지 알아보자.

27) 吉林大學古文字研究室的 통계에 의하면 갑골문에서의 假借字의 占有比率이 90%이상이라고 하였다. 이상기, <고한어 통용자에 대한 고찰>, 267쪽.

일반적인 가차자의 정의는 許慎이 말한 바대로 ‘本無其字，依聲託事，令。長 是也。(본래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어서 소리에 의탁하여 사를 나타냄)’이다.²⁸⁾ 즉 언어에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나타낼 글자가 없기 때문에 소리(음)에 의거하여 음이 같거나 비슷한 다른 글자를 빌려서 그 詞를 나타낸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本有其字，依聲託事(본래 그것을 나타낸 字가 있음에도 소리에 의탁하여 사를 나타냄)하는 경우가 있는데 王引之는 《經義述聞》 卷三十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蓋無本字而後假借他字，此謂造作文字之始也。至於經典古字聲近而通，則有不限於無字之假借字。往往本字見存，而古本則不用本字，而用同聲之字(생각컨대，本字가 없을 경우에 다른 글자를 假借하는 것은 文字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경전의 고자가 어음이 비슷하여 통해 쓰이는 경우를 보면 本字가 없는 경우의 假借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종종 本字가 있어도 고본에는 本字를 쓰지 않고 동음의 글자를 사용하였다.)²⁹⁾

왕인지의 말에 근거하면 本無其字，依聲託事는 글자가 없어서 다른 글자를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글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에 있는 현상이고 후대에는 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자를 빌려 쓰는 가차현상도 있었는데 가차할 때는 음에 근거하여 가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本字가 있음에도 다른 글자를 빌려 쓰는 것을 통가라고 한다.

本字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假借하는 현상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잦아졌는데 《說文解字 敍》의 假借항 주에서 단옥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大抵假借之始 始於本無其字 及其後也 既有其字矣 而多爲假借 又其後也 且至後代 譌字亦得自冒於假借.....'(처음에 假借는 본래 그 字가 없는 것으로 하였는데 후에는 본래 字가 있는 것도 자주 假借하였다. 게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와자 또한 假借가 되었다)³⁰⁾

28) 許慎選，段玉裁注，《說文解字注》，浙江古籍出版社，1998，756쪽.

29) 이영주，《漢字字義論》，서울대학교 출판부，114쪽，재인용.

30) 許慎選，段玉裁注，《說文解字注》，浙江古籍出版社，757쪽.

즉, 본래 가차는 글자가 없어 다른 자형을 빌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글자의 생성초기에 있었던 현상이고 후대에는 음이 같거나 비슷하면 본자가 있어도 종종 가차하였으며 가차현상은 점점 잦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차하는 현상이 잦아지면 하나의 글자 자형에 本義와 假借義를 갖게 되어 一字多義가 되고, 또한 음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가차하였으므로 一字多音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訛字도 가차가 되었다고 하였으니 와자를 가차한 자에 의미부를 첨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화하게 되면 이렇게 분화된 형성자의 성부자와 분화자의 음에는 괴리가 발생하게 되어 같은 성부를 가진 형성자이면서도 서로 음이 다른 글자가 되어 성부가 성부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기도 한다.

本字가 있는데도 왜 假借를 하였을까? 이영주는 《漢字字義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진·양한의 문헌을 보면 당시에 이미 많은 통가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漢字의 表音 機能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즉 고인들이 서사할 때 때로는 字形에 제약받지 않고 文字를 어음의 표기 기호로 간주하여 '갑'자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 그것과 어음이 같거나 유사한 '을'자를 썼던 것이다. 그리고 고대 한어에 동음자가 많았던 것도 이러한 현상을 촉진 시켰을 것이다. 이처럼 文字를 表意 기호로 여겨 本字 대신 통가자를 사용한 것은 편의성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漢字는 字획이 번잡하고 어려워 써기가 불편하고 필기 도구도 사용이 간편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필획이 많은 本字보다는 필획이 적은 통가자를 쓰고자 하였던 것이다.³¹⁾ 이러한 文字 자체의 원인 외에, 양한 이전에는 아직 文字가 통일되지 못하여 규범화되지 못하였고, 진시황의 분서로 인하여 경전이 구전되었던 것도 통가자의 유행에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³²⁾

즉 가차를 자주 이용하였던 이유는 사용의 편의성을 추구하다보니 표의문자인 한자를 언어 기호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차의 용법은 字形이나 字義

31) 李敦柱는 同書에서 本字보다 필획이 더 많은 통가자가 사용되는 경우는 통가자가 本字보다 더 자주 쓰이는 글자들이라 무심결에 쓰인 것일 것이라고 하였다.

32) 이영주 《漢字字義論》 서울대학교 출판부 118쪽

보다 字音を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假借字를 假借되기 이전의 意味로 해석하거나 독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시경에 葛覃 중 '黃鳥于飛 集于灌木 其鳴喈喈 (누룩제비떼 날아와 떨기나무 위에 모여앉아 짹짹 지저귐다)'³³⁾ 라는 소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灌/guàn/의 본래 意味는 '물을 대다, 흘러들어가다'이지만 橫/guàn/의 假借字로 '뻑뻑하다, 무성하다'의 意味로 봐야 할 것이다. 橫을 灌으로 假借하여 나타낸 것을 字形만을 보고 意味를 파악하려 한다면 意味가 통하지 않게 되지만 독음에 근거하여 문맥상의 意味를 파악한다면 옛 문헌들을 잘 못 해석하는 일을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정의인 의미와 무관하게 음만을 가차한 것이 아닌 의미와 관련이 있으면서 가차하는 유의가차에 대해 생각해보자.

詞는 있으나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어서 음에 의거하여 다른 글자를 빌려 사용한 것을 假借라고 하는데 이것이 假借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라 하였다. 그러나 선인들은 假借할 때 발음이 같은 글자이라고 해서 아무 글자나 차용하지 않았고 가능하면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면서 意味에 연관성이 있는 글자를 찾아서 假借하였다. 이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假借에 대해 정의를 내린 許慎의 '本無其字, 依聲託事, 令. 長 是也.'를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許慎은 많은 字들 중에서 왜 하필 令과 長을 예를 들었을까? 令과 長에 대해 단옥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漢人謂縣令曰令長. 縣萬戶以上爲令, 減萬戶爲長. 令之本義發號也, 長之本義久遠也. 縣令縣長無本字, 而由發號, 久遠之義引伸展轉而爲之. 是謂假借. (한인들은 현령을 령장이라 하였다. 만호 이상의 현의 행정책임자는 령이라 하고, 만호가 안 되는 현의 책임자는 장이라 하였는데 령의 본의는 發號이고 장의 본의는 久遠이다. 현령과 현장을 나타내는 字가 본래 없어서 發號와, 久遠의 意味를 引伸하여 그 字를 삼으니 이것이 假借이다.)³⁴⁾

33) 毛傳에는 [灌]은 [叢]으로 해석하였다. 爾雅의 훈석 또한 비슷하며 大雅皇矣를 참고로 보면 其灌其木列는 나무가 뻑뻑이 밀집되다이다. 大戴禮夏小正은 灌荼는 叢生의 차이와 같은 책에 灌廟는 밀집된 많은 사당이라고 되어있다.

34) 許慎選,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浙江古籍出版社 756쪽

여기서 말한 尙과 長은 본래 字가 없어 假借한 字이므로 통가자가 아닌 假借字를 말한다. 假借字로 쓰인 尙과 長은 假借하기 위해 먼저 音이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었다.

그 다음으로 意味 면을 살펴 볼 수가 있는데 尙은 《說文》에 의하면 發號也。从尗、冫。力正切/ling/이라 하였다. 즉 풀이하면 '명령하다'인데 여기에서 명령할 수 있는 높은 지위라는 意味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長은 《說文》에 의하면 久遠也。从兀从匕。兀者，高遠意也。久則變化。亼聲。直良切/cháng/이라 하였다. 즉 長은 '길다, 높다'의 意味가 있으며 '나이가 많음, 지위가 높음'이라는 意味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中國에 동음인 漢字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許慎이 尙과 長으로 假借의 예를 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本無其字，依聲託事' 이 여덟 자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假借字의 정의와 조건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本無其字는 漢字의 字形에 대해 말한 것이고, 依聲은 假借字의 성음에 대해 말한 것이며, 託事란 假借字의 字義를 말한 것이므로 이것은 漢字의 삼요소인 形·音·義를 모두 언급한 것이다.

이제 다시 '本無其字，依聲託事，尙，長 是也.' 이것을 보면 假借字의 정의와 조건 그리고 예를 짧지만 명확하게 설명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假借할 때에는 무조건 音만 같다고 해서 아무 글자나 빌려 쓰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같은 音인 글자이거나 音이 비슷한 글자 중에서 뜻을 통할 수 있거나 조금이라도 가까운 글자를 우선으로 하여 가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글자의 운용 方面에서 보면 轉注와 어느 정도 意味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轉注와 비교하여 주의할 것은 轉注는 글자의 意味 引伸을 위주로 하여 성음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假借는 성음을 위주로 하여 意味에 관계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轉注는 반드시 意味에 상관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뜻이 먼저고 音이 나중인데 반해 假借는 반드시 音이 같거나 비슷해야 하므로 音이 먼저고 義가 나중이다.³⁵⁾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假借字와 意味와의 關係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

35) 柳在潤 <說文解字的 六書研究> 한문교육연구, 177쪽

고 있다. 許璧은 假借의 정의를 '원래 자의와는 관계없이 字音만을 빌어 다른 뜻으로 차용하는 文字이다'³⁶⁾라고 하였고, 李敦柱도 '言語를 기록할 때 성음이 같은 文字를 依託하되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字가 없는 새로운 義를 기록하는 文字의 운영법을 말한다.'³⁷⁾라고 하였으며 이영주도 '假借에 대한 정설은 본의와 假借의 간에 어떠한 意味上的 연관도 없다는 것이다'³⁸⁾라고 하였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字義를 本義, 引伸義, 假借義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引伸義와 假借義의 차이가 명료해지기 때문³⁹⁾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轉注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假借에 대한 견해마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許慎이 말하고자 하는 假借가 意味와 전혀 상관없는 字만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意味의 引伸을 추측할 수 있는 尙, 長의 예를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許慎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假借란 本無其字라 하였으니 言語에는 있으나 글자가 없는 것, 즉 假借의 조건을 말하고, 依聲託事라 하였으니 音에 의탁하여 假借하는 조건을 말한 것이며, 尙, 長을 예자로 삼은 것은 意味와의 연관성이 있는 假借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가차는 詞는 있으나 字가 없을 때 음을 위주로 하여 다른 자형을 빌려서 詞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假借의 사용례를 들어 假借字가 漢字의 變化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1) 文法關係를 나타내는 데 사용 된다.

其/ji/ 箕/ji/

其는 갑골문에서는  이고 《說文》에 없다. 箕는 《說文》에 簸也。从竹； 其，象形；下其丌也。居之切 /ji/(키이다. 竹을 따르고 其를 따르는데 其는 키의 아래부분 모습을 그린 것이다)라 하였다.

36) 許璧 <六書와 說文解字> 인문과학 35쪽

37) 李敦柱 《漢字學總論》 497쪽

38) 이영주 《漢字字義論》 110쪽

39) 齊佩鎔의《訓詁學概論》 82쪽을 이영주가《漢字字義論》 111쪽에 인용하였음.

즉 其는 본의가 箕(곡식을 까부는데 사용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갑골문에서는 其가 본의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문법적인 機能(지시대명사 '그', 관형격조사 '의', 감탄사)을 하는 데에 假借되어 더 자주 쓰였다. 따라서 훗날에 竹을 첨가하여 본의를 나타내는 글자인 箕를 만들었는데, 본의만을 나타내는 전용자가 생기게 되자 其는 문법적인 機能을 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었다.

之 /zhī/

之는 《說文》에 出也。象艸過中，枝莖益大，有所之。一者，地也。止而切 /zhī/('나가는 것'이다. 풀이 中의 단계를 거쳐 가지와 줄기가 점차 자라는 것처럼 성장하여 나오는 모습이다. 一은 땅을 나타낸다.'라 하였다.)라 하였다. 갑골문에서는 字形이 𠄎인데 이것은 발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출발하다, 나가다'의 意味이다.

허신은 之의 본의를 '풀이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하였지만 허신이 《說文》을 지을 시기에는 갑골문이 발굴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허신의 자형 분석은 가끔 불일치 할 경우도 있다. 《說文》이 지어진 시기보다 갑골문이 더 앞서므로 본의는 갑골문에 근거하여 '발, 가다'일 것이다. 그런데 본의인 '발, 가다' 보다는 지시대사와 관형격조사로 假借되어 더 자주 쓰인다.

(2) 인명, 지명 등에 쓰인다.

丘/qiū/ 坵/qiū/ 邱/qiū/

丘는 《說文》에 土之高也，非人所爲也。从北，从一。一，地也，人居在丘南，故从北。中邦之居，在崑崙東南。一曰：四方高，中央下爲丘。象形。古文从土。去鳩切 /qiū/(땅의 높은 곳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北을 따르고 一을 따른다. 一은 땅이다. 사람은 언덕의 남쪽에 살기 때문에 丘는 北을 따른다. 中邦에 사는 것은 崑崙의 동남에 사는 것이다.)라 하였다. 갑골문에서는 𠄎 이고 금문에서

는 丘이다. 두 글자는 象形字이다.

丘는 《說文》에 보이지 않지만 ‘古文从土。(고문은 土를 따른다)’라 하였으니 丘의 고문이고 會意字임을 알 수 있다.

邱는 《說文》에 地名。从邑丘聲。去鳩切 /qiū/(땅 이름이다. 邑을 따르고 丘聲이다.)라 하였다.

즉, 丘는 사람의 힘으로 쌓지 않은 아주 높은 흙더미를 말하는 것인데 丘가 공자의 이름으로 가차되어 쓰이자 혼란을 피하기 위해 邑을 첨가한 邱를 만들어서 본래의 의미인 언덕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性을 나타내는 字들이나 地名을 나타내는 글자들에는 假借字가 매우 많은데 이러한 가차로 인해서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3) 外來詞를 音譯할 때 쓰인다.

보통 중국어의 特徵을 반영하고 있는 漢字는 單音節 어소로 읽는다. 그러나 외래사의 경우 音譯을 할 때는 끊임없이 多音節 어소를 增加 시켰다. 猶豫, 蜈蚣, 蠅螋, 倉庚 등 고대부터 현대의 沙發(소파), 尼龍(나일론) 등 二音節 어소뿐만 아니라 蘇維埃(쏘베트), 布爾什維克(볼셰비키) 達魯花赤(다루가치) 등 세 개 이상의 음절의 어소도 假借字로 기록한다.

중고 시대에 불교를 따라 전래된 羅漢(나한), 比丘(비구), 頭陀(두타), 夜叉("야차) 등과 현대에 서양에서 들어온 巧克力(초콜렛), 麥克風(마이크), 法西斯(파시스트), 阿司匹林(아스피린: 혹은 "阿斯匹靈) 등 이러한 음역자들은 한 개의 字形에 形·音·義를 모두 갖춘 것이 아니라서 한 개 한 개의 낱개자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반드시 그 글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소리 내어야만 音義가 상통한다. 이러한 글자들은 漢字의 한 글자가 形·音·義를 모두 가진 것과는 다르다.

(4) 文字改革으로 인한 假借

漢字는 자수가 많고 字形이 복잡하여 익히기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역대 정권들은 漢字 정리 작업을 진행하여 사람들이 쉽게 익히고 응용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러한 文字 개혁의 方向은 文字 表音化를 실행하고 漢字를 간소화 하는 것이다.⁴⁰⁾

특히 금세기의 中國에서 실시한 漢字의 字形 간체화는 기존 漢字의 字形을 간체화하기도 하고, 또는 획수가 많은 字를 획수가 적으면서音が 같은 字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穀→谷, 嚮→向, 裏→里, 鬪→斗, 幾→几, 瞭→了, 乾→干, 範→范 등인데 이 字들은 필획이 많아서 번잡한 字들을 意味보다는音が 같으면서 字形이 간단한 字들로 대체한 것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본래 그 글자가 있는데 假借한 것과도 같다. 그리고 필획이 번잡한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고 도태시켰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필획이 간단한 假借字를 사용하고 기존의 어려운 字形들이 도태되면서 中國에서는 문맹률이 낮아지는 성과⁴¹⁾를 얻어냈다.

40) 진장태, <中國의 漢字 간체화 문제>, 119쪽.

41) 금세기 40년대 말에 이르러 中國의 문맹자 수는 전국 같은 나이 총인구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中國의 건설과 發展에 매우 불리하였다. 그래서 50년대에서 60년대에 이르기까지 中國은 여러 차례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했다. 문맹 퇴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漢字의 간체화는 일정 정도 漢字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줄여서 식자 교육에도 도움을 주었다.....간체자와 번체자로 문맹 퇴치 실험을 한 결과, 간체자를 사용하여 문맹을 퇴치하는 것이 번체자로 문맹을 퇴치하는 것보다 20%정도 높은 효율을 나타냈다. 진장태 <中國의 漢字 간체화 문제> 122~123쪽

IV. 漢字音의 機能

1. 異體字, 同形字, 同源字의 判別

言語는 소리가므로 그 형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言語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文字는 그 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文字를 눈으로 보아서 그 文字가 무엇인지를 판별한다. 그렇다면 단지 그 형만으로 文字를 판별하는 것인데 漢字는 字形만으로 그 글자를 판별하여서는 안 된다.

초기의 漢字는 圖畫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象形性이 강하므로 字形을 살펴보면 그 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보았듯이 첨가, 대체, 변형, 생략 등 계속된 漢字의 자형변화로 말미암아 象形性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漢字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 계속 增加하고 있고, 字音과 字義가 變化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字形만을 보고 그 글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漢字는 形·音·義를 두루 살펴야만 그 글자가 같은 글자인지, 혹은 다른 글자인지, 혹은 원래 같은 근원을 가진 글자인데 나중에 나누어진 글자인지를 알 수 있다. 字形이 서로 다른 두 글자가 字義와 字音 또한 같다면, 이 두 글자는 하나의 글자이지만 字形만 다른 글자 즉 異體字이며, 字形이 서로 같으나 그 字義나 字音이 다르다면 전혀 다른 글자이지만 외형만 같은 同形字이다. 그리고 자형은 다르지만 자음과 자의에 모종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글자는 본래 하나의 근원에서 나뉘어져 나온 同源字이다.

즉 漢字의 音은 異體字와 同形字, 그리고 同源字 등을 판별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글자들을 제시하여, 각각에서 그 字音이 그것들을 판별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1) 異體字

漢字의 역사를 갑골문을 사용하던 殷商時代부터 계산하면 지금까지 약 3000여 년이 된다. 이렇게 긴 시간을 거치면서 漢字는 여러 가지 이유로 字形이 變化되고 分化하였고, 이에 따라 漢字의 수도 점차 增加하였다. 先秦時代에 사용된 글자는 대략 7,000자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상용자는 절반을 차지하고, 이후에도 점차 그 수가 增加하여 지금은 이미 약 60,000자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 중 통용자는 7,000자 정도이고 상용자는 3,500자 정도이다.⁴²⁾⁴³⁾

여기에서 주의할 만한 것은 漢字의 총수는 6만여 字나 되는데 상용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용자를 뺀 나머지의 글자들은 무엇인가? 그 글자들은 대부분 文字의 變化過程에서 생성된 異體字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異體字는 동일한 意味를 나타내는 같은 字이지만 단지 그 字形만이 다른 것을 말한다. 즉 漢字의 통상적 서사법 이외의 서사법으로 쓰인 글자를 말하며, 或體라고도 한다.⁴⁴⁾ 異體字의 상대적인 概念은 正字이고, 異體字와 비슷한 意味로 俗體, 古今字, 別字, 避諱字, 簡化字 등이 있다.⁴⁵⁾ 異體字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異體字는 본래 같은 글자인데 여러 개의 자형이 존재하는 글자이므로 반드시 字音과 字義가 동일해야만 한다.

이러한 異體字가 발생하는 이유를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지만 그들의 견해는 약간씩 다르다. 本考에서는, 李相機의 <中國에서의 漢字의 整理와 簡化에 대한 小考>와 <古漢語의 通用字에 대한 考察>, 李圭甲의 <漢字의 淘汰 研

42) 진장태 <中國의 漢字 간체화 문제> 새국어생활 제1권 118쪽

43) 李圭甲은 <漢字의 淘汰 研究>《中國學論叢》 제1집 202쪽에서 漢字의 총수는 약 오만여자이고 현재 상용되는 漢字는 오천여자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44) 裘錫圭는 異體字의 정의를 '용법이 완전히 서로 같은 글자 곧 한글자의 異體만이 비로소 異體字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며 이것을 좁은 意味의 異體字라 하였고 부분적인 용법이 서로 같은 異體字는 부분적인 異體字라고 하며 좁은 意味의 異體字와 부분적인 異體字를 합친 것이 넓은 意味의 異體字라 하였다. 《中國文字學》商務印書館 205쪽

45) 全廣鎮 《中國文字訓詁學辭典》東文選, 2003, 96쪽 의 정의에 따르면

속체란 손으로 쓴 글자 중에서 자서의 사법과 상이한 漢字의 자체라 하였는데 그 예로 盡 𣎵, 答 𣎵, 變 𣎵, 敵 𣎵, 顧 𣎵, 獻 𣎵, 등을 들었다.

별자란 정자와 다른 또 하나의 글자라 하였는데 어떤 글자를 써야 함에 그 글자와 음이 같거나 비슷한 다른 글자를 썼을 경우를 총칭하여 별자라 하였다.

피휘자란 中國 고대에서 군부존친의 이름을 회피하는 풍습이 있어서 그 이름자 대신 다른 글자로 고쳐 쓴 글자를 피휘자라 하였다. 예를 들면 진시황의 이름은 嬴政 또는 正이어서 진나라 때는 正月을 端月이라 한 것 등이다.

간화자는 해서체 漢字 중 필획이 복잡한 글자를 간화한 글을 말한다.

究>, 許成道 등의 《中國語學概論》, 裘錫圭의 《中國文字學》, 全廣鎭의 《中國文字訓詁學辭典》등을 참조하여, 異體字의 생성원인별로 나누어 8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서술하되, 그러한 異體字를 판별하는데 字音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造字法이 다른 異體字

造字法이 다른 異體字란, 한자의 조자원리인 六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象形, 指事, 會意, 形聲 등 그 造字방식이 달라 나뉘어진 異體字를 말한다. 이러한 異體字는 비록 그 造字法이 달라 字形은 다를지라도 그것의 音義는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異體字인 것을 분별하는 데에는 字音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異體字를 몇 가지 들어 살펴보겠다.

豔/yàn/ 艷/yàn/ (고울 염)

위의 豔과 艷은 모두 곱다는 뜻이며, 소리 또한 모두 /yàn/으로써 異體字라고 할 수 있다.

두 글자가 字音과 字義가 같으나 字形이 다른 異體字가 된 것은, 會意나 形聲이라는 결구방식에 따라 字形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豔은 《說文》에서 “好而長也。从豐。豐, 大也。盍聲。《春秋傳》曰: “美而豔。” (좋은 것이다. 豐을 따르는데 豐은 크다는 뜻이다. 盍聲이다.)라고 한 반면, 艷은 《說文》에 보이지 않는다.

王力은 《古漢語字典》에서 艷은 豔의 속체자라고 하였다.⁴⁶⁾ 즉 豔은 豐(례)를 따르며 盍聲인 形聲字이고, 艷은 豐(례)를 따르며 色을 따르는 會意字이다. 따라서 이 두 글자는 그 육서의 결구방식이 달라 字形이 달라진 異體字로서, 이것이 異體字인 것을 분별하는 데에는, 두 글자의 字義가 같을 뿐 아니라, 字音이 모두 以膽切로서 /yàn/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46) 위의 책 1036쪽, 1311쪽.

淚/lèi/ 泪/lèi/ (눈물 루)

淚와 泪는 모두 《說文》에는 보이지 않고, 다만 淚은 王力的 《古漢語 字典》에 보인다.

淚는 水를 따르고 戾聲인 形聲字이고, 泪는 水를 따르고 目을 따르는 會意자로써, 淚와 泪는 결구방식이 형성인지와 회의인지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자형이 달라진 글자이다. 그러나 두 자의 의미는 모두 ‘눈물’을 뜻하고 또한 모두 발음이 /lèi/로 같기 때문에 淚와 泪는 異體字이다.

蒞/gòu/ 遘/gòu/ (만날 구)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蒞는 물고기가 만나는 형상을 그린 상형자이고, 遘는 蒞에 辵을 첨가하여 분화된 형성자이다. 遘가 분화되어 독립하기 전에 蒞는 이미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遘 또한 ‘만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蒞와 遘 두 글자는 본래 하나였으므로, 두 자는 의미뿐만 아니라 음도 /gòu/로 같다. 이 두 글자는 한 글자에서 분화되어 나왔기 때문에 分化字이기도 하지만, 그 결구방식이 상형과 형성으로 다르고, 字音과 字義가 같으므로 異體字에 분류할 수 있다.

② 자형을 간략화한 簡俗字⁴⁷⁾

일종의 그림문자라고 할 수 있는 한자는, 자형으로 그 의미를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에, 字形이 다른 문자에 비하여 매우 복잡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자형은 사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자

47) 簡俗字라는 말은 許成道 外, 《中國語學概論》,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57쪽에서 사용되었는데 간속자의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簡은 簡略의 簡이고 俗은 民俗, 風俗의 俗이므로 자형이 간략화된 것으로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글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형을 간략하게 변화시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형의 간략화가 관에서 주도하였다면, 그 글자는 正字가 될 것이지만, 민간에서 사용의 편의를 위해 자형을 간략화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簡俗字라고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글자들을 몇 가지 들어 살펴보겠다.

麤/chén/ 塵/chén/ 尘/chén/ (먼지 진)

위의 塵은 《說文》에는 보이지 않고, 麤는 《說文》의 麤部에 속한 글자로, ‘鹿行揚土也。从麤从土。直珍切 /chén/(사슴이 똬 후 흩날리는 흙먼지이다. 麤를 따르고 土를 따르는 會意字다.)’라고 하였다.

麤/chén/과 塵/chén/은 자형이 유사하며 의미가 같고 자음 또한 같으므로 塵은 麤의 자형을 간화하여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塵/chén/과 尘/chén/은, 자형으로 보아, 흙 위에 사슴과 흙 위에 작은 것이 있는 것으로 字形은 다르지만, 塵은 사슴이 움직일 때 일으키는 것이 작은 먼지이고, 尘은 자형이 이미 작은 흙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 字義는 모두 ‘먼지’이고, 字音 또한 /chén/으로 같다.

즉 麤의 자형을 간화시켜 塵을 만들고, 다시 塵을 간화시켜 尘을 만든 것이다.

오늘날 尘은 옛 글자의 속자를 빌려 간화자⁴⁸⁾로 대체한 것⁴⁹⁾으로 《간화자총표》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麤/chén/, 塵/chén/, 尘/chén/은 字形이 다르지만

48) 중국에서는 각 시기에 필요에 따라 대대적인 글자 정리 작업을 해왔는데 이로써 많은 이체자들이 생성되었다. 근대에 중국에서 한 간화작업 또한 역대 정권에서 해왔던 것과 같이 많은 이체자들을 만들어 냈으므로 이와 같은 범주로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화작업은 시기별로 이루어 졌으므로 시기별 고급자인 異體字를 생성해 내었으므로 마땅히 異體字로 보아야 할 것이다.

49) 陳章太 <中國의 漢字 簡體化 問題>에 따르면 中國의 漢字 간체화의 방법은 생략, 형체 변화, 대체, 새로운 창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귀납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원래 글자의 윤곽이 남아 있다. 蓋 盖
2. 원래 글자의 特徵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 醫 医
3. 形聲字에서 비교적 복잡한 聲符나 形符를 바꾼다. 與 与
4. 非形聲字를 形聲字로 고친다. 膚 肤
5. 같은 음으로 대체한다. 谷 穀
6. 초서를 해서화한다. 爲 为
7. 복잡한 편방을 고쳐 간단한 상징 부호로 한다. 學 学
8. 새로 會意字를 만든다. 體 體
9. 부호로 대체한다. 萬 万
10. 옛 글자를 빌려 쓴다. 云 雲 塵 尘

字音과 字義가 같으므로 異體字라고 할 수 있다.

③ 書寫法의 差異로 인한 異體字

漢字 가운데 어떤 글자는 필획의 簡略化에 의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書寫 형식이 다르거나 訛變되어서 異體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굳어져서 異體字가 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글자들은 본래 하나의 글자인데, 오직 잘못 쓴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異體字인 것이다.

그것의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弔/diào/ 吊/diào/ (조상할 조)

《說文》에 의하면 弔는 ‘問終也。古之葬者，厚衣之以薪。从人持弓，會毆禽。多嘯切 /diào/(조상하다. 조문하는 것이다. 옛날의 장례는 띠 풀로 옷을 만들어 두겹게 하였다. 사람이 弓을 가지고 짐승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것을 따른다.)’하였다.

弔의 자형을 보면 弓과 人을 따르고 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띠 풀로 묶어 들판에 버렸는데 효자들은 부모의 시신을 동물들이 와서 먹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활을 들고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린 글자이다.⁵⁰⁾

吊는 《說文》에 보이지 않고, 王力の 《古漢語 字典》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弔와 吊는 자형이 유사하고 쓰임도 같다. 따라서 吊은 서사형식 등의 차이로 訛變되어 弔의 異體가 된 것이다.⁵¹⁾

두 글자는 모두 ‘조문하다’라는 의미이고, 소리도 /diào/로 같으므로 자형만 다른 異體字이다.

④ 形聲字의 偏旁을 代替한 異體字

50)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5, 1111쪽.

51) 裘錫圭, 《文字學概要》 商務印書館, 2010, 208쪽.

形聲字는 義符와 聲符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義符를 代替한 異體字와 聲符를 代替한 異體字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a. 義符 代替 異體字

漢字 가운데 形聲字의 義符는 단지 단어의 意味 범주만을 표시하므로 어떤 경우에는 意味가 비슷한 義符로 대체하여 異體字를 만들 수 있다.

《說文》의 部首字는 의미를 대표하는 글자로 그 部類의 대표자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형성자의 義符는, 주로 부수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로 말미암아 《說文》의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 중에서 의미가 비슷한 것으로 대체된 것이 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豸와 豸, 虫, 宀과 宀, 厂과 广, 竹과 竹, 米와 禾, 鳥와 隹 등이 있으며, 아래에서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鷄/jī/ 雞/jī/

鷄와 雞는 모두 닭을 의미하는 글자로서 義符가 鳥와 隹로 자형만 다르고 音이 같으므로 異體字이다.

雞는 《說文》에서 “知時畜也。从隹，奚聲。古兮切。”(시간을 아는 가축이다. 隹를 따르고 奚聲이다.)라고 하였고, 鷄는 《說文》에 표제자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鷄는 雞의 籀文이라고 하였다.

즉, 雞와 鷄는 모두 닭을 의미하는 글자인데 隹인가 鳥인지만 다르다. 隹와 鳥는 모두 새를 나타내는 글자로서, 하나는 꼬리가 긴 새이고 하나는 꼬리가 짧은 새라고는 하지만 실제 글자를 이룰 때는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종종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隹와 鳥는 단지 雞와 鷄의 의미 범주인 새의 종류를 의미할 뿐, 두 義符를 대체하였다고 해서 글자의 뜻이나 음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두 글자는 자형만 다른 異體字라고 할 수 있다.

釘/dīng/,/dìng/ 釘/dīng/(못 정)

위에 제시한 釘과 杙은 같은 글자라고 할 수 있다. 釘/dīng/,/ding/과 杙/dǐng/은 음은 같고 성조만 다르다. 義符인 金과 木은 단지 그 재질이 쇠로 만든 것과, 나무로 만든 것의 차이 일 뿐이지 모두 '못'이라는 意味는 바뀌지 않는다.

釘은 《說文》과 王力の 《古漢語字典》과 《現代漢語詞典》에 모두 '못, 치다'의 의미로 기록되어있는데 반해, 杙은 《說文》과 王力の 《古漢語字典》에 '치다'라는 뜻과 별레이름인 虵이라는 뜻이며, 《現代漢語詞典》에는 보이지 않는다.

문물의 발전으로 보았을 때 쇠못의 등장은 나무못의 퇴장을 불러왔을 것이고 나무못은 반드시 쇠못보다 먼저 존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나무못이라는 의미인 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字音이 그에 따라 변하였을 것이며, 그 동안 釘이 產生되어 못이라는 의미로 상용되게 되자, 원래 못이라는 뜻으로 쓰이던 杙은 별레이름을 나타내는 글자로 가차하게 되고, 본래의 뜻인 나무못이라는 의미는 점차 도태된 것으로 보인다.

b. 聲符 代替 異體字

형성자의 義符를 대체하여 異體字를 만든 것처럼, 형성자의 聲符도 同音이거나 음이 비슷한 글자로 대체하여 異體字를 만들 수 있다. 성부를 대체한 후에도 자의나 자음이 바뀌지 않으므로 두 글자는 이체자가 된다.

響/xiǎng/ 响/xiǎng/ (소리,울릴 향)

響은 《說文》에 “聲也。从音，鄉聲。許兩切 /xiǎng/ (돌아오는 소리이다. 音을 따르고 鄉聲이다.)”라 하였고, 响은 《說文》이나 《古漢語字典》에도 없고, 《現代漢語詞典》에만 보이는데 響과 같은 글자이다

響과 响은 둘 다 형성자인데 義符인 音과 口가 대체되었고, 聲符인 鄉과 向도 서로 대체되었다. 義符와 聲符를 대체한 후에도, 두 글자의 발음은 /xiǎng/으로 바뀌지 않았으므로, 響/xiǎng/과 响/xiǎng/은 字形은 비록 다르지만 그 뜻과 소리가 같으므로 異體字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⑤ 文字整理 사업에 의한 異體字

한자는 역사가 길고,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지역 또한 넓어서 여러 종류의 이체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러한 이체자가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면 글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각 시기 정부는 필요에 의해 이체자 정리사업을 벌였는데 이때는 가능한 필획을 복잡한 것에서 간단한 것으로 줄이려고 하였다. 따라서 문자를 정리하기 위한 문자정리 사업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글자가 산생되기도 하였다.

體/tǐ/ 体/tǐ/ (몸 체)

體는 《說文》에 “總十二屬也。从骨豊聲。他禮切。”(열두 부위이다. 骨을 따르고 豊(/ì/)聲이다.)라 하였다. 단옥재는 머리의 세 부분인 정수리, 얼굴, 턱과, 몸의 세 부분인 어깨, 몸통, 엉덩이와 팔의 세 부분인 위팔, 아래팔, 손과, 하지의 세 부분인 허벅지, 종아리, 발로 모두 열 두 부위가 속한다고 하였다.⁵²⁾

体는 體를 간화하여 만든 글자로 《간화자총표》에 나오는데 결구의 구성이 人과 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人과 本이 모두 소리를 나타내지 않으며, 人을 따르고 本을 따르는 회의자이다.

즉 體와 体는 같은 글자로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시기적으로 古字와 今字 관계인 同字가 된다. 따라서 몸이라는 의미와 /tǐ/라는 음이 같다. 역으로 글자의 결구방식이 달라 자형이 완전히 다르지만, 音과 義가 같으므로 두 글자는 異體字이다.

⑥ 偏旁 排列에 따른 異體字

어떤 漢字는 편방의 위치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배열 방식에 따라 異體字를 만든다. 때로는 상하배열이 달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좌우의 배

52) 許慎選,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浙江古籍出版社, 1998, 166쪽.

열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글자들은 배열방식이 달라지면 의미나 뜻도 달라져서 전혀 다른 글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배열 방식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의미나 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글자들은 이체자이다. 따라서 이것을 보더라도 이체자를 관별할 때 한자의 음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蠍/xiè/ 蟹/xiè/ (계 해)

蠍는 《說文》에 “有二敖八足，芴行，非蛇鮮之穴無所庇。从虫解聲。胡買切” /xiè/ (두개의 큰 발이 있고 여덟 개의 다리로 옆으로 다니는 것이다. 뱀도 물고기의 소굴도 아니고 숨을 곳도 없다. 虫를 따르고 解聲이다.)라고 하였다.

蠍는 의부가 왼쪽에 성부가 오른쪽에 있는 형성자이고, 蟹는 의부가 아래쪽에 성부는 위쪽에 있는 형성자이다. 두 글자는 위치배열이 상하인지 좌우인지는 다르지만, 배열이 달라졌다고 해서 字音/xiè/과 字義(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蠍/xiè/와 蟹/xiè/는 이체자이다.

翹/chi/ 猳/chi/ 猳/chi/ (날개 시)

翹와 猳는 字音/chi/과 字義(날개)는 모두 같고 편방의 배열만 다른 이체자이다.

猳는 《說文》에 “翼也。从羽支聲。施智切。” /chi/ (날개이다. 羽를 따르고 支성이다.)라고 하였다. 《說文解字今釋》에는 猳는 翹의 古字라 하였다. 또한 氏를 따르는 猳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 글자로서 猳의 或體라고 하였다.⁵³⁾ 지금은 猳보다 翹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翹/chi/와 猳/chi/는 편방의 위치 배열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로 바뀌었을 뿐, 字義와 字音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이 두 글자는 이체자이다.

또한 猳/chi/는 성부가 支에서 氏로 대체된 이체자이다.

53)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5, 487쪽.

⑦ 자형의 일부를 취한 異體字

한자는 필획이 많거나 자형이 매우 복잡하여 사용하기에 불편할 때는 사람들은 종종 자형을 간략화 하였는데, 간략화 할 때 字形의 일부를 취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형의 일부를 취할 때는 아무 부분이나 무분별하게 취한 것은 아니고 그 글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취하여 異體字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聲/xiǎng/ 声/xiǎng/ (소리 성)

声은 聲에서 일부를 취하여 만들어낸 이체자이다.

聲은 《說文》에서 “音也。从耳殸聲。殸，籀文磬。書盈切。”(소리이다. 耳를 따르고 殸聲이다. 殸은 주문 磬이다.)라고 하였다.

갑골문에서 聲은 殸과 耳와 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殸은 채를 잡고 있는 손의 모습이고 耳는 돌의 형상이며 殸은 生의 字形이 생략된 모습이다. 生은 소리를 나타내고 耳는 두드리는 대상을 나타내는데 이 두 글자가 聲의 핵심부분이다.⁵⁴⁾

聲에서 아래의 耳는 귀의 형상이므로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접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므로 생략해도 무방하여 생략하였을 것이다. 耳가 생략되었으므로 자형은 殸이 되는데 여기에서 殸(攴)은 손으로 복채를 잡고 있는 것이므로 직접 소리가 나는 부분은 아니므로 이것도 생략하여 声만 남게 되었다. 声은 실제로 소리가 나는 부분인 耳와 글자의 소리를 알 수 있는 殸로 이루어진 글자이므로 전체 聲이라는 글자에서도 가장 핵심 부분만 남게 된 것이다.

결국 聲은 자형의 일부분을 여러 번 생략하여 가장 핵심 부분만 남겨 声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声은 聲과 의미나 음/xiǎng/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두

54) 李圃, 《甲骨文字學》, 學林文庫, 1994, 85~86쪽.

글자는 자형만 다른 異體字인 것이다.

⑧ 위의 ①~⑦상황이 동시에 일어나 생긴 異體字

이체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한 글자가 반드시 하나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체자가 발생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상기의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체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蟹/xiè/ 蟹/xiè/ 蟹/xiè/(계 해)

위의 ⑥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蟹와 蟹는 字形이 상하, 좌우로 배열되어 字形만 다른 異體字이다. 그런데 蟹와 蟹는 좌우 배열로 字形의 배열은 같지만, 蟹와 蟹는 《說文解字今釋》에 근거하면 正體와 俗體의 關係인 異體字이다⁵⁵⁾. 두 글자는 모두 形聲字인데, 義符를 虫에서 魚로 대체한 異體字이다.

義符를 대체하는 현상은 종종 있어왔던 것으로서 ④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 세 글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글자의 외형이 변화하였지만 의미는 ‘계’이고 음은 /xiè/로 변함이 없으므로 異體字들이다.

이상 異體字의 여러 종류와 異體字 생성 원인을 정리해 보았는데, 처음부터 造字方法이 달랐거나, 이미 만들어진 글자의 자형을 간략화하거나, 書寫 方法이 달라 異體字가 된 경우 등과, 形聲字의 偏旁을 代替한 異體字, 그리고 인위적으로 文字를 整理하여 만든 異體字, 그리고 偏旁의 排列에 따르거나, 자형의 일부를 취하여 만든 異體字, 마지막으로 어느 한 가지가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나 생긴 異體字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생겨난 異體字로 말미암아, 한자의 글자 수는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글자 수의 증가와 異體字의 발생은 文字變化의 관점에서 보면 필연적인 것이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異體字는 그 모양만 가지고는 둘 사이의

55) 위의 책 1924쪽.

体 (bèn 분) 体 (tǐ 체)

② 똑같이 表意字인 同形字

甬(bà 파) 甬(qì 기) 甬(béng 용)

③ 똑같이 形聲字인 同形字

椅(yī 의) 椅(yǐ 의)

④ 字形의 變化로 만들어진 同形字

适(kuò 괄) 适(shì 적)

金國泰는 <同形字來源例析>에서 同形字를 8개로 분류했는데 造字同形, 表義同形, 類化同形, 訛變同形, 混淆同形, 借字同形, 歸併同形, 簡化同形으로 나누었다. 다음은 金國泰의 同形字 분류이다.⁶⁰⁾

① 造字同形

漢字는 한 날 한 시 한 사람에게서 造字되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서사자로 인하여 우연히 같아진 것을 말한다.

② 表義同形

文字의 分化過程 중 일자다사와 일사다의자의 意味를 구분하기 위해 義符를 첨가하거나 義符를 改換하는데, 이 過程 속에서 서로 다른 글자의 字形이 같아진 것을 말한다.

③ 類化同形

서면言語로 기록될 때 함께 쓰이는 다른 字形의 영향을 받아 두 字形이 같아진 것을 말한다.

④ 訛變同形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원래의 字形에 오해가 생겨 字形이 變化하여 같아진 것이다.

⑤ 混淆同形

혼효는 文字의 運用 過程 중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비슷한 字形을 사용하여 字形이 같아진 것이다.

⑥ 借字同形

關係가 같거나 비슷한 글자이지만 발음이 다른 글자를 빌린 것으로 同音假借字

60) 金國泰, <同形字來源例析>, 吉林師範學院學報, 1991, 참조.

나 同源字와는 다른 것이다.

⑦ 歸併同形

두 글자의 자원은 다르나 후대에 와서 같아진 것으로 두 개의 字形을 하나로 합병하여 통일한 것이다.

⑧ 簡化同形

字形 간화로 인하여 字形이 같아진 同形字이다.

또 周效鳳은 同形字 생성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는데 다음과 같다.⁶¹⁾

① 同形字는 假借 造字法으로 만들어진 假借字로 생성되었다.

② 同形字는 통가용자법의 차자로 생성되었다.

③ 同形字는 사동용법의 부분동사로 생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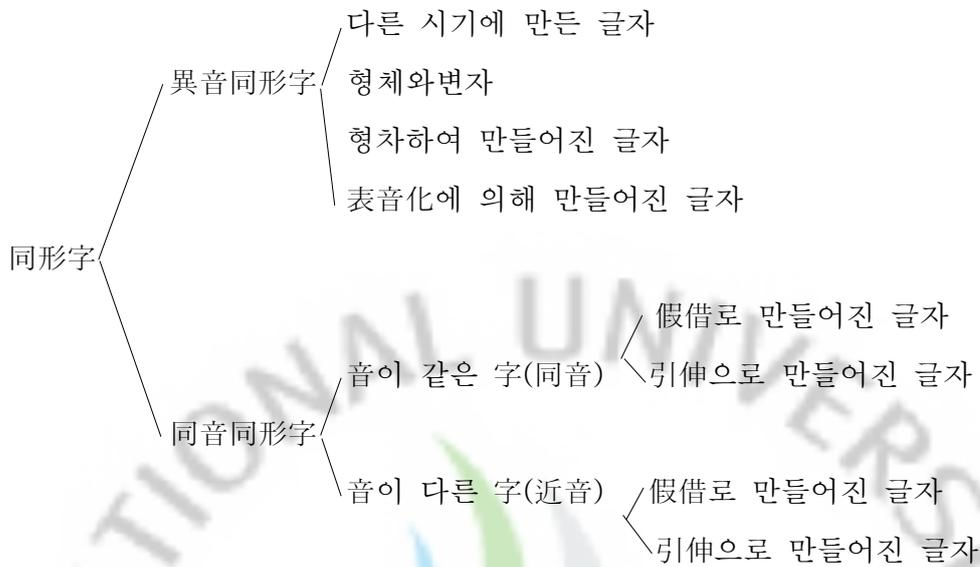
④ 同形字는 引伸으로 생성되었다.

⑤ 同形字는 간화자로 생성되었다.

이상은 여러 학자들의 同形字의 분류이다. 위의 諸 學者들은 同形字를 結구상의 特徵이나 생성원인으로 분류하였는데, 본고는 漢字의 變化過程에서의 音의 機能을 연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同形字를 漢字音과의 關係에 따라서 異音 同形字와 同音同形字로 나누고, 다시 同音同形字는 音이 완전히 같은 것과 音이 비슷한 것 등으로 나누어 분류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同形字를 音과의 관련성 有無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61) 周效鳳, <同形字探源>, 時代文學, 2009, 참조.



위 표에 따르면 同形字의 생성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異音同形字들은 裘錫圭가 말한 것처럼 전혀 다른 글자를 다른 시기에 각각 만들었으나 그 글자의 字形이 우연히 같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漢字의 만든 시기가 유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사용된 지역이 넓지만, 지금처럼 매체가 발달되지 못하여 표준화된 字形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여, 글자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사법이 차이가 생기거나 와전되어 글자의 형체가 잘못 굳어진 것이 있다.

그리고 字形과 意味가 서로 關係가 있어서 字音과는 무관하게 字形만을 빌렸기 때문에⁶²⁾ 다른 글자와 字形이 같아진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漢字가 形聲文字化되면서 表音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글자의 형체를 고의적으로 고쳤는데, 고친 결과 원래는 서로 다른 글자였던 것들이 결국에는 字形이 같아진 것이 있다.

위에서 정리한 동형자의 생성원인을 토대로,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하나의 자형으로 실현되는 동형자를 구분하는 데에 한자의 음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62) 字形을 빌렸으므로 形借이다. 假借는 본래 詞는 있으나 글자가 없어서 음이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자를 빌린 것인데, 형차는 글자의 字音과는 관계없이 자형과 의미에 관계가 있어서 빌린 것을 말한다.

(1) 異音同形字

먼저 異音同形字를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鉞 (/shé/ 또는 /shī/ 이고 鉞 鉞라고도 씀. 창 사)

鉞 (/tuó/ 저울추 砣(타)의 異體字)

鉞 (/tā/ 금속 원소인 '탈륨')

위에서 제시한 서로 다른 세 글자의 鉞는 字形은 모두 하나이지만, 각각 鉞 (/shé/ 또는 /shī/), 鉞(/tuó/), 鉞(/tā/)로서, 서로 뜻과音が 다른 同形字들이다.

鉞(/shé/ 또는 /shī/)는 갑골문에는 보이지 않고 《說文》에만 보인다. 《說文》에 의하면 “短矛也. 从金, 它聲. 食遮切.”(짧은 창이다. 金을 따르고 它聲이다.)라고 하였고, 단옥재는 《說文解字注》에서 “鉞는 방언으로 鉞 또는 鉞라고도 하는데, 鉞를 《廣雅》에서 矛佺라고 하였고, 晉書에서는 丈八鉞矛의 鉞가 좌우가 바뀌어있다.”⁶³⁾고 했다.

이 鉞는 또 鉞/shé/ 또는 /shī/)라고도 쓴다. 鉞는 《說文》에는 없고, 王力の 《古漢語字典》에서는, 它와 也의 篆體가 비슷하여, 鉞를 鉞로 잘못 쓴 것이라고 하였다.⁶⁴⁾

또한 鉞는 처음에 鉞로 오인되었다가 다시 鉞로 오인되었고 이것은 또다시 鉞로 오인되었다. 《集韻》에서 “鉞, 鉞음은 商支切/shī/이다.”⁶⁵⁾라고 하였다.

鉞/tuó/는 《說文》에는 보이지 않으나, 王力은 《古漢語字典》에서 “鉞(砣)/tuó/는 徒禾切/tuó/이고 후기자이며, 그 意味는 ‘저울 추’이다”라고 하였고,⁶⁶⁾ 《現代漢語詞典》에서는 “砣와 鉞는 같은 글자이다.”라고 하였지만⁶⁷⁾, 아직 탈륨이라는 意味로 쓰이지는 않았다.

이후 鉞/tā/가 탈륨이라는 意味로 쓰이게 된 것은 《現代漢語詞典》에 비로소

63) 許慎選,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浙江古籍出版社, 1998, 711쪽.

64)它與也篆體相似, 故鉞誤爲鉞.... 위의 책 1512쪽.

65) “鉞字一誤而爲鉞, 再誤而爲鉞, 因又作鉞矣.....鉞 鉞音商支切, 故鉞又讀/shī/위의 책 1512쪽, 1615쪽.

66) 위의 책 807쪽.

67) 위의 책 1288쪽.

보이게 되었다.⁶⁸⁾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鉞는 각각 다른 시기에 만들어져서, 각각 창, 저울 추, 탈름 등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글자이지만, 鉞라는 하나의 字形으로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字音은 여전히 /shé/ 또는 /shǐ/, /tuó/, /ta/로 각기 다르다.

이렇게 字形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의미인 것으로 말미암아, 同形字라고 분류하는 데에는 字音이 서로 달라, 서로 다른 글자인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字音은 同形字를 분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隻 (/huò/ 잡을 획(獲)의 초문)

隻 (/zhǐ/ 외작 척 (잡을 획(隻)을 形借함⁶⁹⁾)

隻은 《說文》에 의하면 “鳥一枚也。从又持隹。持一隹曰隻，二隹曰雙。之石切 /zhǐ/ (새 한 마리이다. 손으로 새를 잡고 있는 것을 따른다. 새 한 마리를 잡는 것을 隻이라하고 두 마리는 雙이라한다)”라고 하여, 손에 한 마리의 새를 잡고 있는 모양으로 ‘한 마리의 새’를 말한다고 하였고, 손에 두 마리의 새를 잡고 있는 모습인 雙은 ‘두 마리의 새’라고 하였다.

李孝定은 《甲骨文字集釋》에서 ‘갑골복사에 隻자가 있는데 새를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며 意味는 ‘잡다’이고 小篆에는 獲자가 있는데 이것은 후기에 만들어진 形聲字이며, 새 한 마리라는 뜻의 隻은 別義이다.’라 하였다.⁷⁰⁾

즉, 隻는 ‘새 한 마리’가 본의가 아니고 ‘잡다’가 본의라는 것이다. 본래 처음 글자를 만들었을 때는 본의로 사용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본의와 가까운 의미로 인신되고 확장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글자가 있다면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먼저 사용된 의미가 본의이다. 따라서 隻은 상·주 시대에 獲(잡을 획)으로 쓰였고 훗날에는 雙과 반대되는 ‘홀’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隻의 본의는

68) 위의 책 1215쪽.

69) 形借는 假借의 반대概念이다. 假借는 意味나 字形보다는 독음이 같거나 비슷하여 차용하여 쓴 것을 말하는데 형차는 독음 보다는 字形으로 意味를 나타낼 수 있어 그 意味가 달라도 차용하여 쓴 것을 말한다.

70)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5, 492쪽. 재인용.

李孝定の 말대로 ‘잡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위의 설명에 따르면, 隻은 ‘잡다’와 ‘홀’을 나타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글자인데, 하나의 字形으로 실현되었으므로 字音과 字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래서 ‘홀’을 나타내는 隻/zhi/과 音·義가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犬을 따르고 獲/wò/聲인 獲자를 만들어서 ‘잡다’라는 의미의 글자를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獲이 생기게 되자, 隻은 ‘홀’이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지만 ‘잡다’라는 의미의 獲을 만들기 이전까지 두 글자는 하나의 자형으로 실현되는 동형자였던 것이다.

隻을 동형자라 말 할 수 있는 것은, 隻이 字形이 같을 뿐 아니라, ‘잡다’라는 의미와 ‘홀’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字音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 同音同形字

다음은 同音同形字들인데 그 생성원인으로는 被借字와 假借字의 關係, 本義와 引伸義의 關係로 말미암은 것이 있다. 假借는 소리가 같거나 유사하여 글자를 빌린 것이므로 假借字로 인한 同形字가 字音과 關係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詞義引伸도 引伸할 때 音이 같거나 약간의 音의 변동이 있으므로 引伸으로 인한 同形字도 字音과 결코 無關하지 않다. 다음은 음이 같거나 비슷한 동음 동형자로서, 먼저 음이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

花 (/huā/ 꽃 화)

花 (/huā/ 시간이나 돈 등을 쓸 화)

花는 《說文》에는 花라는 字形이 없다.

그러나 湯可敬의 《說文解字今釋》에 의하면 花는 𦵏나 𦵑라고 하였다. 𦵏는 《說文》에서 “艸木華葉𦵏。象形。是爲切。”/chuí/(꽃잎이다. 상형이다.)라고 하였고, 𦵑는 《說文》에서 “艸木華也。从𦵏亏聲。況于切”/huā/(꽃이다. 𦵏를 따르

고 亏聲이다)라고 하였다. 즉 萑은 초목의 꽃이고 聿를 따르고 亏聲인 會意兼形聲字라고 한 것이다.

단속재는 華의 고자(从艸从萑 戶瓜切)와 萑는 同字라고 하였다.⁷¹⁾ 또 花는 俗字로서 北朝에서 만들어 졌다고 한다. 원래 꽃이라는 뜻이었던 華가 引伸되어 광채라는 뜻까지 나타내다가 후에 華는 광채만을 나타내는데 쓰이고, 花가 꽃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한다.⁷²⁾

또한 《說文》과 王力の 《古漢語字典》에는 '쓰다'의 意味로 쓰이는 花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참 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쓰다'로 假借된 것으로 보인다. 假借는 音이 같거나 비슷하여 다른 글자를 차용한 것이므로 두 글자는 字形이 완전히 같고 字音 또한 같지만 字義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

즉, 花(/huā/, 꽃 화)와 花(/huā/, 시간이나 돈 등을 쓸 화)는 자형은 하나로 같지만 의미가 다르므로 동형자인데, 두 글자의 의미는 서로 관계성이 없으면서 음이 서로 같으므로 두 글자는 가차로 인한 同形字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자의 字音은 또한 가차로 인한 同形字를 判別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 아래에서는 음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우를 예를 든다.

行 (/xíng/ 길 행)

行 (/háng/ 항렬 항)

行은 《說文》에 의하면 “人之步趨也。从彳，从亍。戶庚切 /xíng/(사람이 걷는 것이다. 彳을 따르고 亍를 따른다)”라고 하여 ‘걸는 것, 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羅振玉은 《增訂殷虛書契考釋》에서 갑골문으로 行은 네거리를 나타내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며 彳와 亍는 한 쪽이 생략된 형태라고 하였다.⁷³⁾

또한 《說文》이나 갑골문에서는 항렬이라는 意味의 ‘行(/háng/)’은 보이지 않고, 王力の 《古漢語字典》에서 비로소 “胡郎切/háng/, 百人이 卒이고 二十五人

71) 許慎選,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浙江古籍出版社, 1998, 274~275쪽.

72)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5, 835~ 836쪽.

73)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5, 273쪽 재인용.

은 行이다. 行은 卒의 行列이다.”⁷⁴⁾라고 하였다.

行/xíng/과 行/háng/은 引伸關係로 인한 同形字로서, 字音과 意味 모두 關係가 있다.

역으로 보면 行이라는 하나의 字形으로 실현되는 行(/xíng/, 길 행)과 行(/háng/, 항렬 항)은 의미가 다르고 음이 서로 달라 혼동할 수 있지만, 두 글자의 의미는 서로 비슷하고 음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두 글자가 인신으로 인한 동형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한자의 음은 인신으로 인한 동형자를 판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同源字⁷⁵⁾

同源字는 같은 어원을 가진 글자를 말하는데 같은 어원을 가졌다는 것은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 글자들끼리는 字音과 字義가 같거나 字音이나 字義에 모종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글자들은 같은 근원에서 파생되었으므로 마치 가족과도 같은 同源字族을 형성하게 되는데 낱개의 하나의 글자들을 동원자라 하고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으므로 어휘의 관점에서 同源詞라 하기도 한다.

동원자는 어원, 어휘와 관계가 있으므로 언어의 관점에서 음과 義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음과 意味와의 關係는 반드시 필연적인가? 사실 성음과 의미는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다. 言語와 意味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關係⁷⁶⁾이기 때문에 동일대상을 지칭하는 언어의 소리와 對象義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言語는 사회적인 약속이므로 어떤 意味에 어떤 소리언어를 결합하기로 약정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관습화하게 되면 그 소리언어와 意味 간에는 모종의 관계성이 있다는 고정관념이 형성 된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장기적

74) 위의 책 1196쪽.

75) 동일한 어원에서 孳乳, 分化하여 생겨난 친속關係의 여러 어휘를 지칭하는 용어는 학자들 간에 일치되지 않는다. 周法高는 詞群이라 하였고, 章炳麟은 語根, 王力은 同源詞, 齊佩瑢은 語族, 張世綠은 詞類라고 하였다. 이영주 《漢字學總論》 서울대학교출판부 131쪽

76) 자의적이라 함은 한국인이 개라고 명명한 것을 영어에서는 dog(도그), 中國어의 gou(고우), 프랑스어의 chien(시앵), 독일어의 hund(훈트) 등 각 言語가 하나의 대상인 개를 지칭하는 말의 소리가 다 다른 것을 意味한다. 즉 意味(대상)과 소리(言語)간에는 關係가 없다.

으로 유지되면 그것은 필연적인 關係가 되어서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새로운 사를 派生해 낼 때에도 기존에 고정관념이 형성된 그 소리와 같거나 유사한 소리의 詞를 派生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파생된 사들은 자형의 유사성의 多少와 관계없이 字義와 字音이 같거나 유사하다. 예를 들면 空(비다 공)과 孔(구멍 공), 寬(넓다 관)과 闊(크다, 멀다 활), 改(고치다 개)와 更(고치다 경) 등과 같은 것들은 同源字들인데 자형의 유사성은 찾을 수 없고 단지 音 · 義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⁷⁷⁾ 따라서 동원자를 판별 할 때는 반드시 音 · 義를 살펴야 하므로 한자의 음은 동원자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한다.

同源字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한 사람은 王力인데 그는 《同源字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凡音義皆近. 音近義同. 或義近音同的字. 叫做同原字 這些字都有同一來源 或者是同時產生的, 如‘背’和‘負’, 或者是先後產生的, 如‘鼈’와‘旄’. 同源字, 常常是以某一概念爲中心, 而以語音的細微差別(或同音), 表示相近或相近的幾個概念. 例如 小犬爲狗, 小熊,小虎爲狗, 小馬爲駒, 小羊爲羔. ……黑色叫‘盧’, 也寫作‘黠’. 黑弓叫‘旅’, 黑土叫‘墟’, 黑狗叫‘獠’, 黑色的橘子叫‘櫨’, 目瞳子因爲是黑色的, 叫‘瞳’. 爲什麼說它們是同源呢? 因爲它們在原始的時候本是一個詞, 完全同音, 後來分化爲兩個以上的讀音, 纔產生細微的意義差別. 有時候, 連讀音也沒有分化(如‘暗’, ‘闇’), 只是字形不同, 用途也不完全相同罷了.(무릇 音義가 相近한 音近義同, 의근음동의 글자를 同源字라고 부른다. 이러한 글자들은 모두 동일래원을 갖고 있다. 어쩌면 동시에 생성된 것일 수도 있는데. “背”와 “負”가 그 예이다. 어쩌면 선후로 생성된 것일 수도 있는데, 鼈(들소)와 “旄”(들소 꼬리로 장식한 깃발)이 그 예이다. 同源字는 항상 어떤 한 概念을 중심으로 삼고, 어음의 미세한 차이로써(혹은 동음) 서로 근접하거나 관련이 있는 概念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작은 개는 狗이고, 작은 곰과 작은 호랑이는 狗이고, 작은 말은 駒이고 작은 양은 羔이다. …… 검은 색은 “盧”라고 부르며, 또한 “黠”로 쓴다. 검은 활은 “旅”라고 부르며, 검은 흙은 “墟”라고 부르며, 검은 개는 “獠”라고 부르며 검은 색 글은 “櫨”라고 하며, 눈동자는 검은 색이기 때문에 “瞳”라고 부른다. 왜 그것들이 同源이라고 말하는가? 그것들은 원시時代에 본래

77) 동원자 중에서 형성자로 이루어진 동원자의 경우는 같은 성부를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자형에도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같은 성부를 가진 형성자라 하더라도 형성자 성부의 음이 같거나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는 하나의 詞였고 완전히 동음이었는데, 후에 두 개 이상의 독음으로 分化되어 미세한 意味 차이가 생겨난 것이다. 때로는 독음조차도 分化되지 않았고(예를 들어 “暗, 闇”), 다만 字形이 달라서 쓰임도 완전하게 달라진 것뿐이다.)⁷⁸⁾

王力の 同源字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同源字는 어음상에서 서로 근접하거나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同源字는 意味상에서 서로 근접하거나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同源字는 동일한 내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원래는 하나의 詞였고, 다만 나중에 음의관계상의 分化가 나타났다.

원래 동일어원인 글자들이 어떻게 分化를 하였을까? 陸宗達, 王寧 등이 합저한 《訓詁方法論》의 <同源通用字>에 同源字의 分化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新詞因關係引伸而派生後便孳乳出相應的新字 新字的字義已由源發詞分化出來, 但是由於過去長期的習慣, 在新字尚未被習用的過渡階段有與源發字通用的情況, 這就是同源通用字.(새로운 사가 關係의 引伸으로 인해 派生된 후에는 그에 상응한 새로운 글자를 派生하게 된다. 새로운 글자의 字의는 이미 발원사로부터 分化되었지만 과거의 장기적인 습관 때문에 새로운 글자가 아직 습용하지 않는 過渡期에 발원자와 통용될 때 이를 同源通用字라고 한다.)⁷⁹⁾

즉 同源字는 의미 引伸으로 인해 派生되어 생겨난 字들을 말하고 이렇게 派生된 字는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발원자와 함께 통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미의 引伸은 음이 같거나 약간의 음의 변동이 따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同源字 間에는 음에 상관성이 있다.

王力은 한자음의 중요성 일찍이 알고 言語와 文字의 상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文字는 본래 言語의 대용품일 뿐이다. 文字가 有聲言語의 關係를 벗어난다면, 文字의 성질을 잃게 된다. 그러나, 고대의 文字학자들은 이러한 도리를 알지 못했다'

78) 孫雍長, 《訓詁原理》, 어문출판사 1997, 155쪽 재인용

79) 李相機 <古漢語의 通用字에 대한 考察>, 인문과학, 1998, 272쪽 재인용

기 때문에 마치 文字가 概念을 직접 표시하는 것처럼 여겼다. ……形만을 중시하고 聲은 중시하지 않는 이러한 관점은 1700년 동안 中國 文字學(許慎의 時代부터 段玉裁, 王念孫의 時代까지)을 속박하였고, 段玉裁, 王念孫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었다. 文字가 바로 有聲言語를 대표하는 것이며, 同音의 字가 바로 同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聲符는 같으나 意符는 다른 字가 同源일수도 있고. 심지어 義符, 聲符가 모두 다르더라도, 音이 같거나 가깝기만 해도 同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古代 經史子集 중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字들이 모두 분명하게 되었으니, 이는 훈고학의 혁명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⁸⁰⁾

이것은 어원과 자의와의 관계에서 한자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문자는 유성언어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자형의 자라 하더라도 한자의 음에 따라 동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음과 의미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음과 의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왕력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러한 자료는 성훈⁸¹⁾의 자료에서 많이 보인다.

성훈은 훈고학자들이 關係를 혼석할 때 사용하는 形訓⁸²⁾, 義訓⁸³⁾과 상대적인 방법이다. 《周易》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훈고학자들이 어떻게 혼석하였는지 알 수 있다.

- 乾, 健也。(乾은 강건하다)
- 坤, 順也。(坤은 유순하다)
- 坎, 陷也。坎者, 陷也。(坎은 빠지는 것이다)
- 晉, 進也。晉者, 進也。(晉은 나아감이다)
- 蹇, 難也。蹇者, 難也。(蹇은 어려움이다)
- 夬, 決也。夬者, 決也。(夬는 결단함이다)

80) 孫雍長, 《訓詁原理》, 어문출판사, 1997, 재인용

81) 어음으로 어의를 구하는 방법을 因聲求義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진시기부터 있어왔고 이 방법으로 훈고학자들은 關係를 혼석하였는데 그것을 聲訓 또는 音訓이라고 한다.

82) 漢字의 형체 구조를 근거로 글자의 뜻을 풀이하는 훈고방식을 形訓이라 한다. 全廣鎭 《中國文字訓詁學辭典》, 東文選, 2003, 267쪽.

83) 어떤 낱말의 意味를 해석함에 있어서 字形의 구조 혹은 音의 關係로써 분석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 言語에서 실제로 된 그 낱말의 意味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훈고방식을 말한다. 全廣鎭, 《中國文字訓詁學辭典》, 東文選, 2003, 269쪽.

兌, 說也。兌者, 說也。(兌는 기뻐함이다)⁸⁴⁾

위 《주역》에 나오는 피훈석자는 모두 주역의 卦名인데 피훈석자와 훈석자의 關係를 보면 모두 음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들로 훈석을 하였다. 그리고 어떤 훈석자는 피훈석자의 派生자이다. 夬의 훈석인 決과, 兌의 훈석인 說은 모두 피훈석자에서 派生되어 나온 글자들이기 때문에 음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성훈은 漢代에 이르러 비교적 널리 사용되었는데 《說文》에서도 성훈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⁸⁵⁾

木, 冒也。冒地而生。(木은 莫卜切/mù/, 冒는 莫報切/mào/)

穀, 續也。(穀은 古祿切/gǔ/, 續은 似足切/xù/)

尾, 微也。(尾는 無斐切/wěi/, 微는 無非切/wēi/)

門, 聞也。(門은 莫奔切/mén/, 聞은 無分切/wén/)⁸⁶⁾

《釋名》은 劉熙가 聲訓이라는 방식을 전문적으로 사용하여 語義를 풀이한 저서로 성훈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① 同音(음이 같은 것)

土, 吐也, 吐生萬物也。(土(땅)는 吐(토하다)이다. 만물을 토해낸다는 것이다)

盲, 茫也, 茫茫無所見也(盲(눈멀다)은 茫(아득하다)이다. 너무 아득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다)

② 雙聲(성모가 같은 것)

星, 散也, 列位布散也(星(별)은 散(흩어지다)이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것이다)

火, 化也, 消化物也(火(불)는 化(멸하다)이다. 만물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다)

③ 疊韻(운이 같은 것)

矢, 指也, 言其有所指向迅疾也(矢(화살)는 指(손발가락)이다. 손가락으로 신속하게 가리킨다는 것이다)

84)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內閣版 三經 下》, 성희사, 1973. 1531~1544쪽.

85) 許慎의 《說文》을 형서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지만 黃侃의 통계에 따르면 의훈은 2~3할이고 성훈이 7~8할을 차지한다. 주대박, 《훈고학의 이해》, 1997, 235쪽.

86) 許慎選,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浙江古籍出版社, 1998, 238쪽, 326쪽, 402쪽, 587쪽.

鞞, 坳也, 體堅坳也(鞞(바퀴통, 수레)은 坳(굳다, 딱딱하다)이다. 몸체가 견고하고 딱딱하다는 것이다)

④ 音轉相近(음이 서로 비슷한 것)

船, 循也, 循水而行也(船(배)은 循(따르다)이다. 물을 따라가는 것이다)

癩, 徙也, 浸淫移徙處日廣也(癩(옴-피부병)은 徙(옮기다)이다. 몸의 으스스한 곳에 파고들어서 감염되는 곳이 날로 넓어지는 것이다), 故青徐謂癩爲徙也(청주와 서주 지방에서는 癩을 徙라고 한다)⁸⁷⁾

위의 성훈의 사례들을 보면 詞의 명명된 원인을 찾는 것으로 하나의 字를 다른 字로 훈석 하였는데 단순히 자의를 훈석하는 것을 넘어 더 나아가 성음이 비슷하면 意味가 서로 통한다는 音近義通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音近義通 不限形體'(성음이 가까우면 意味도 통하고 그 형체에 제한이 없다)는 段玉裁, 王念孫 등이 주장했다. 이 주장은 그들의 스승인 대진의 理論이 심화 된 것이다. 《轉語》는 대진이 지은 책인데 이미 실전되었고 序만 《戴東原集》4권에 실려 전해지는데 이 序를 보면 《轉語》는 字音의 聲紐에 근거하여 詞語의 通轉을 밝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사람의 발음기관을 다섯 부위로 나누고 발음 방법에 따라 각 부위를 4가지 종류로 나누었는데 이를 位라고 했다. 그는 발음과 意味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凡同位則同聲, 同聲則可以通乎其義. 位同則聲變以同, 聲變以同, 則其義亦可以比之而通 (같은 위라면 발음이 같고, 같은 발음이라면 그 意味가 통할 수 있다. 위가 같으면 발음이 변하여 같아지고, 변하여 같아지면 그 意味도 엇비슷하게 통할 수 있다)⁸⁸⁾

여기에서 같은 위는 바로 성뉴의 발음 부위가 서로 같다는 것이고, 위가 같다는 것은 성뉴의 발음 방법이 서로 같다는 것이다. 대진은 성뉴의 발음 부위가 같으면 어음 중의 字音이 같고, 字音이 같으면 意味가 서로 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성뉴의 발음 방법이 같으면 字音의 전변도 서로 같고 字音의 전변이 같으면

87) 全廣鎮, 《中國文字訓詁學辭典》, 東文選, 2003, 271쪽

88) 주대박, 《훈고학의 이해》, 동과서, 1997, 128~129쪽. 재인용

글자의 意味도 서로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같다고 하였다. 이는 성음과 意味와의 관련성을 말한 것인데 기존의 성훈과는 다른 것이다.

단옥재는 《說文》叢자에 다음과 같이 주를 달았다.

凡賁聲字多訓大. 如《毛傳》云, '墳, 大防也.' '頌, 大首兒.', '汾, 大也' 皆是. 奔聲與賁聲一也. (賁聲의 글자는 대체로 크다는 意味를 갖는다. 예를 들어 《毛傳》에서는墳은 큰 제방이라고 하였고, 頌은 큰 머리의 모양이라 하였으며 汾은 큰 것이라고 하였는데 모두가 옳다. 奔聲과 賁聲은 같다.)⁸⁹⁾

즉 어음이 賁과 같은 것은 聲符가 무엇인지와는 關係없이 크다는 意味를 갖는다는 것으로 墳, 頌, 汾은 서로 聲符가 다르지만 賁과 音이 같기 때문에 각 큰 제방, 큰 머리, 큰 물이라는 뜻을 갖고 叢 또한 큰 북이라는 뜻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漢字의 형체와는 關係없이 어음이 같으면 意味가 상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音近義通'은 言語와 文字의 關係에 대한 훈고학자들의 인식의 커다란 發展으로, 文字 형체에만 매여 있던 한계를 벗어나서, '聲音이 가깝거나 같다면 상통하는 意味를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形聲字가 아니라도 聲音이 가깝거나 같다면 意味 또한 상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초기에 詞의 命名義를 혼석하기 위한 성훈에서부터 음근의통의 견해로 발전하고 다시 음근의통의 견해는 더욱 발전하여 성과 의는 근원이 같다는 聲義同源으로 발전하게 되어 글자의 동원관계에 대한 연구를 촉발하게 된다.

단옥재는 《說文》의 '禛'자의 아래에 '聲與義同原, 故諧聲之偏旁多與字義相近. (성과 의는 그 근원이 같다. 그래서 해성의 편방은 자의와도 매우 가깝다.)'⁹⁰⁾라고 말하였고 《說文》의 '坤'자 아래에 '文字之始作也, 有義以後有音, 有音以後有形, 音必先乎形(文字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意味가 있는 후에 어음이 있고, 어음이 있는 후에 字形이 만들어 질 것이니 音은 필히 字形보다 앞선다.)'⁹¹⁾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漢字의 意味와 성음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音의 關係는 章炳麟(太炎), 黃侃(季剛), 王力 등 후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同源字

89) 許慎選,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浙江古籍出版社, 1998, 206쪽.

90) 許慎選,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浙江古籍出版社, 1998, 2쪽.

91) 위의 책 682쪽.

와 同源字들로 형성되는 語族으로까지 관심영역을 확대시켰다.

지금까지 전인들의 음의에 대한 생각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同源字 연구에 까지 이르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럼 실제로 동원자의 예를 들어 음과 義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다음은 동원자의 예들이다.

晶/jīng/ 星/xīng/

晶은 《說文》에 精光也。从三日。凡晶之屬皆从晶。子盈切 /jīng/ (반짝이는 빛이다. 일이 세 개 있는 것을 따른다.)라고 하였고, 星은 萬物之精, 上爲列星。从晶生聲。一曰象形。从口, 古口復注中, 故與日同。桑經切 /xīng/ (만물의 광채이다. 하늘에 있는 것은 星이다. 晶을 다르고 生聲이다. 日은 象形이다. 口를 따른다. 옛날에는 0의 가운데 점을 찍었는데 그래서 日과 같다.)라 하였다.

星은 《說文》에서 晶部에 있는 글자인데 그 의미가 서로 같고 음 또한 /jīng/, /xīng/으로 韻尾가 같다.

즉 晶은 상형자이고 하늘에 떠있는 별을 그림으로써 빛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晶은 ‘별’의 의미와 ‘빛’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星은 晶에 聲符인 生을 첨가하여 만든 글자로서 ‘빛’이라는 의미보다 구체적인 사물인 ‘별’을 나타낸다. 晶이 聲보다 의미 범주가 더 크고 다양하며, 晶은 상형이고, 星은 형성이므로 星이 晶에서 분화하여 나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晶은 星의 초기자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晶과 星은 의미상에 관계를 가지고 있고 字音 또한 /jīng/과 /xīng/으로 비슷하다. 따라서 이 두자의 관계는 동원자임을 알 수 있다. 왕력도 《古漢語字典》에서 星과 晶은 同源字라 하였다.⁹²⁾ 이렇듯 동원자는 의미가 같거나 비슷하고 자음 또한 같거나 비슷해야 하므로 한자의 음은 同源字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田/tián/ 佃/tián/,/diàn/

92) 王力, 《王力古漢語字典》, 中華書局, 2005, 432쪽

田은 《說文》에 “陳也。樹穀曰田。象四口。十，阡陌之制也。待季切。”/tián/ ((가지런하게) 늘어놓은 것이다. 벼를 심는 곳을 田이라 한다. (口)는 田의 네 주위의 경계선을 본뜬 것이다. 十은 동서남북 중횡으로 있는 도랑을 나타내고 있다.)라 하였다.

佃은 “中也。从人田聲。《春秋傳》曰：“乘中佃。一轅車。堂練切。” /diàn/ (중등의 수레이다. 인을 따르고 田聲이다. 《春秋傳》에서는 중등의 수레인데 말을 끄는 끌채가 하나인 차이)라 하였다.

왕력 《古漢語字典》에는 田에 밭의 뜻도 있고 사냥의 뜻도 있다 하였고, 佃에는 租種田地의 뜻과 사냥의 뜻도 있다고 하였다.⁹³⁾ 田은 상형자로서 佃보다 의미 범주가 크고, 佃은 의미 범주가 작으며 회의자이다. 그리고 두 자는 음이 같거나 비슷하다. 따라서 佃이 田에서 파생되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田/tián/과 佃/tián/ 두 자의 뜻이 중복되고 두자의 음이 같은 것으로 보아 두 자는 본래 하나의 자였는데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자는 동원자이다. 즉, 의미와 음의 상관성으로 두 자가 동원자임을 판별 할 수 있다.

瑕/xiá/ 赭/xiá/ 駮/xiá/ 霞/xiǎ/

瑕는 《說文》에 玉小赤也。从玉段聲。乎加切 /xiá/(작고 붉은 옥이다. 玉을 따르고 段聲이다)하였고 赭는 赤色也。从赤段聲。乎加切 /xiá/(붉은 색이다. 赤을 따르고 段聲이다)하였다. 駮는 馬赤白雜毛。从馬段聲。謂色似鰕魚也。乎加切 /xiá/(붉은 털과 흰털이 섞인 말이다. 馬를 따르고 段聲이다)라 하였으며 霞는 赤雲氣也。从雨段聲。胡加切 /xiǎ/(붉은 구름이다. 雨를 따르고 段聲이다)라 하였다.

위의 글자들은 모두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음도 /xiá/, /xiǎ/로 같거나 비슷하다. 왕력 《古漢語字典》에는 위의 네 자는 모두 고음이 동음이라 하였다. 또한 赭는 瑕의 분별자이고 천상을 자주 가리키던 霞는 赭의 후기자라 하였다. 따라서 위의 네 자는 모두가 동원자라 하였다.⁹⁴⁾

93) 위의 책 23쪽, 739쪽

妃/fēi/ 配/pèi/

妃는 《說文》에 匹也。从女己聲。 芳非切 /fei/。(배필이다. 女를 따르고 己聲이다.)라 하였고 配는 酒色也。从酉己聲。 滂佩切 /pèi/(주색이다. 酉를 따르고 己聲이다.)라 하였다. 王力 《古漢語字典》에는 妃는 본래 배필의 뜻인데 인신되어 황제의 부인, 태자, 왕, 제후의 배필로 인신되었고 配와 통가할 수 있다 하였다.

配는 배필의 뜻이고 보조하다는 뜻도 있으며 남편, 또는 아내인 배우자의 뜻 등도 있다 하였다. 妃/fēi/와 配/pèi/ 두 자는 의미에도 관련이 있으며, 상고음이 쌍성겸 침운으로 같은데 단지 성조의 차이만 있다. 따라서 두 글자는 동원자이다.⁹⁵⁾

猿/yuán/ 猿/yuán/ 猿/yuán/ 援/yuán/

猿은 《說文》에 없고 《古漢語字典》에서는 원숭이의 한 종류이고 猿과 같다고 하였다. 雨元切 /yuán/.⁹⁶⁾ 猿도 《說文》에 없고 于元切 /yuán/.이다.⁹⁷⁾ 猿은 《說文》에 善援, 禺屬。从虫爰聲。 雨元切 /yuán/(뽀어 당기는 것을 좋아하는 원숭이의 종류이다. 虫를 따르고 爰聲이다.)라 하였다.

援은 《說文》에 引也。从手爰聲。 雨元切 /yuán/ (잡아 당기는 것이다. 手를 따르고 爰聲이다.)라 하였다.

王力은 猿을 고서에서는 자주 猿, 猿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猿(猿, 猿)과 援은 동음이라 하였다. 또한 원숭이를 猿(원)이라 하는 것은 援(잡아당길 원)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猿/yuán/, 猿/yuán/, 猿/yuán/, 援/yuán/은 의미도 모두 관계가 있고 음 또한 똑같으므로 모두 동원자라 하였다.⁹⁸⁾

94) 위의 책 721쪽, 1342쪽, 1617쪽, 1687쪽.

95) 위의 책 187쪽, 1489쪽.

96) 위의 책 700쪽

97) 王力, 《王力古漢語字典》, 中華書局, 2005, 699쪽.

98) 王力, 《王力古漢語字典》, 中華書局, 2005, 1165쪽.

2. 同聲符異音字 判別

漢字의 音은 漢字의 變化를 반영한다. 漢字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變化를 거쳐 發展해온 文字이다. 그리고 그 變化는 表意字에서 表音文字로의 方向性을 가지고 있다. 이미 漢字에서 形聲字가 차지하는 比率은 압도적이고 形聲字는 表音機能을 하는 聲符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形聲字의 聲符를 통해 漢字의 變化를 역으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초기 漢字가 만들어질 때에는 일자일음이였다. 그러므로 形聲字에 하나의 聲符를 갖는 것이 정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글자는 일자다음이고, 또 어떤 形聲字는 聲符가 두 개 이상인 경우가 있으며, 또 어떤 字는 形聲字의 聲符가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音이 다르기도 하다. 이것은 그 漢字가 생성되고 變化해 온 過程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반영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형성자의 성부와 성부로 쓰인 자의 음이 다른 것은 그 자에 모종의 변화가 있었음을 뜻하는데 형성자의 성부의 음으로 같은 성부이지만 음이 다른 동성부이 음자를 판별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들어 漢字의 音이 어떤 機能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享/xiǎng/ - 淳 醇 鎔 鯨/chún/

享은 音인데 《說文》에 의하면 獻也。从高省，曰象進孰物形。《孝經》曰：'祭則鬼盲之。' 許兩切 /xiǎng/(마치는 것이다. 고의 생략된 모습이다. 잘 익은 음식을 마치는 모습이다. 《孝經》에서 이르길 음식을 제사 지내는 것이다)이라 했고, 淳은 孰也。从盲从羊。讀若純。一曰鬻也。常倫切/chún/(잘 익은 것이다. 盲를 따르고 羊을 따른다. 鬻라 하기도 한다)라 했다.

淳, 醇, 鎔, 鯨는 모두 聲符로 享을 가지고 있지만 聲符와 실제 그 字들의 독음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그 이유는 淳, 醇, 鎔, 鯨가 聲符로 가진 글자는

후이 아닌 후이기 때문이다.

漢字의 字形은 대개 복잡한 것에서 간단한 것으로 變化하는데 辜/chún/과 冑/xiǎng/은 서로 다른 글자인데 字形이 비슷하여 辜대신에 필획이 적은 冑로 聲符를 고쳤다. 따라서 淳, 醇, 鎔, 鯨은 形聲字이지만 聲符인 후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 形聲字의 聲符는 字形 變化의 有無를 알게 해주는데 형성자의 성부의 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冊/cè/ 姍/shān/ 珊/shān/

冊은 《說文》에 의하면 符命也。諸侯進受於王也。象其札一長一短，中有二編之形。凡冊之屬皆从冊。楚革切/cè/(符信敎命이다. 제후가 왕에게 받는 것이다. 그 서찰이 길고 짧은 것을 상형한 것이다.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선은 묶은 것을 그린 것이다.)라 하였다. 冊은 符信敎命로 제후가 조정에 들어가 왕에게 받는 簡冊이다. 冊은 그 서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음을 본떴고, 中間의 〰은 죽간을 잇는 두 줄의 ㅂㅅ을 나타낸다.⁹⁹⁾

珊은 《說文》에 의하면 珊瑚，色赤，生於海，或生於山。从玉，刪省聲。蘇干切 /shān/(산호이다. 붉은색인데 바다에 살기도 하고 혹은 산에 살기도 한다. 玉을 따르고 刪聲인데 刪이 생략되었다) 이라하였다.

姍은 《說文》에 의하면 誹也。一曰翼便也。从女，刪省聲。所晏切 /shān/(비방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翼便¹⁰⁰⁾이라 하기도 한다. 女를 따르고 刪성인데 刪의 일부가 생략된 형상이다)이라 하였다.

冊과 姍은 모두 형성자인데 자의 외형만으로 보면 대개 형성자의 의미부는 左文이고 성부는 右文이므로 冊/cè/이 성부가 된다. 그러나 冊/cè/의 성음과 珊, 姍 /shān/의 성음은 매우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珊과 姍은 형성자이지만 성부는 冊이 아닌 刪을 성부로 가지고 있고 그 성부의 자형 중 일부인 ㅂㅅ가 생략되어 冊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성부를 가지고 있지만 성음에

99)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100) 단속재는 ‘翼便’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許慎選.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浙江古籍出版社, 1998. 625쪽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貝/bèi/ 賊/zéi/

貝는 《說文》에 海介蟲也。居陸名蝾，在水名蝸。象形。古者貨貝而寶龜，周而有泉，至秦廢貝行錢。凡貝之屬皆从貝。博蓋切 /bèi/(바다에 있는 생물이다. 물에 사는 것은 蝾이라 하고 물속에 있는 것은 蝸이라한다. 조개 껍질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古代에는 조개 껍질을 가치 있는 물건으로 여겼고 거북이 껍질을 진귀한 보물로 여겼다. 周나라 때 (화폐제도에) 泉(돈 천: 조개 껍질을 없애지 않음)이 있었으나 秦나라에 이르러 조개 껍질을 없애고 錢을 유통시켰다.)라 하였다.

賊은 《說文》에 의하면 敗也。从戈則聲。昨則切 /zéi/ (해치는 것이다. 戈를 다르고 則聲이다.)라 하였다.

賊은 《說文》에서 戈를 다르고 則聲이라고 하였으므로 형성자인데 글자의 외형으로 보았을 때 賊은 貝와 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貝/bèi/와 賊/zéi/은 성음에 차이가 매우 많이 나므로 賊의 聲符는 貝가 아니다. 賊의 성부는 則인데 則의 자형의 일부인 讠가 생략된 것이다.

士/shì/ 志/zhì/

士는 《說文》에 의하면 事也。數始於一，終於十。从一从十。孔子曰：“推十合一爲士。”凡士之屬皆从士。鈕里切 /shì/(士는 일을 변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數는 一에서 시작해서 十에서 끝난다. 一을 따르고 十을 따르는 회의이다. 공자는 “많은 사물들의 근원을 찾아내어 하나의 진리로 귀납할 수 있는 사람이 선비이다”라고 하였다.) 라 하였고 志는 意也。从心，之聲。職吏切 /zhì/(생각 이다. 心을 따르고 之聲이다.)라 하였다.

志는 글자의 외형으로 보면 士와 心이 상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志의 상부에 있는 士는 士가 아니고 之인데 志의 성부인 之가 訛變되어 士가 되었다. 따라서 志/zhì/는 之/zhì/를 성부로 하고 있으므로 士/shì/와 독음이 다르다.

隹/zhuī/ 稚/zhi/

隹는 《說文》에 의하면 鳥之短尾總名也。象形。職追切/zhuī/(새의 꼬리가 짧은 것을 말한다. 상형이다)이라 하였고 稚는 《說文》에 보이지 않는다. 穉는 《說文》 幼禾也。从禾犀聲。直利切 /zhi/(어린 것, 어린 벼이다.禾를 따르고 犀聲이다)이라 하였다.

稚는 글자의 외형으로 보면 禾와 隹로 이루어진 자로 보인다. 그러나 《說文》에는 禾와 隹로 이루어진 글자는 없으며 대신 穉가 있는데 穉는 禾와 犀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그 글자의 음과 의는 稚와 같으므로 稚와 외형만 다른 이체자이고 同字이다. 穉의 성부는 犀/xī/인데 이것이 訛變되어 隹가 되었다.

3. 分化字 產生

漢字의 音은 分化字를 產生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分化字라는 것은 본래 하나의 자형에서 여러 개의 자로 쪼개져 나온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것들이 分化되어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의 자형에 여러 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형을 사용하였을 때 오는 음·의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하나의 자형에 여러 음·의를 가지는 것을 一字多義, 一字多音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의의 인신과 가차 때문이다. 따라서 인신의를 위주로 하여 產生된 分化字와 가차음 위주의 產生된 分化字의 두 부류로 나누고 예자들을 살펴 한자의 음이 分化字를 產生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아보자.

1) 引伸 分化字

앞서도 거론하였지만 言語의 대상인 意味와, 소리로 실현된 言語와의 關係는 자의적이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그 概念에 특정 지역의 사람들 사이

에서 어떠한 명칭이 부여되면 그 概念과 명칭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습이 되어 굳어지고 어음과 意味는 규정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어음과 意味의 關係를 기초로 하여 의미연상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意味를 派生하게 되는데 자연현상인 風(바람)으로 時代的 사상 기풍을 나타내기도 하고, 불기둥을 意味하는 주로 주인의 主를 나타내기도 하고 寤(잠을 깨다)로 悟(깨닫다)를 표현하기도 하며 梳(머리빗)는 그 성질과 형상이 성글기 때문에 성글다는 뜻의 疏를 빗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새로운 사물들 사이의 關係는 그것이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구체적인 사물과 그것의 特徵, 사물의 외형과 성질, 작용, 범위, 장소, 등 여러 방면에서 서로 意味상의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 간에는 이러한 관련성으로 말미암아 처음 부여된 명칭의 어음에 연관성은 있지만 意味는 조금씩 다른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더 나아가 점차 새로운 詞와 字를 派生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연상을 통해 새로운 사를 派生할 때는 意味의 引伸과 變化가 일어나는데 引伸과 變化는 어음 방면에서 크게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난다. 하나는 어음은 변하지 않은 채 새로운 意味 향이 增加하는 것이고, 하나는 어음이 조금 변하면서 새로운 사어를 派生 시키는 것이다.¹⁰¹⁾ 다음은 의미의 인신으로 새로운 자가 파생되어 만들어진 자들이다.

解/jiě/(해) 懈/xiè/(해)

解는 《說文》에 의하면 判也。从刀判牛角。一曰解廌，獸也。佳買切/jiě/ 又，戶賣切/xiè/(나누는 것이다. 칼로 소를 골발하는 것이다. 다른 설로는 廌라는 짐승을 골발하는 것이다)라 하였고, 懈는 《說文》에 의하면 怠也。从心解聲。戶賣切/xiè/(게으른 것이다. 心을 다르고 解聲이다)이라 하였다.

따라서 解는 본의가 칼로 소의 뼈를 발라내는 것인데 여기에서 意味가 引伸하여 마음이 '풀어지다'라는 意味도 갖게 되었다. 후에 意味인 心을 더하여 懈가 分化되어 나왔다. 王力 《古漢語字典》에 의하면 본래 解에는 여러 意味가 있었는데

101) 주대박 《훈고학의 이해》, 동과서, 1997, 223쪽.

데 解에서 懈가 分化되어 나왔으며 解와 懈는 同源字라 하였다.¹⁰²⁾ 引伸에는 약간의 어음의 變化가 따를 수 있으므로 形聲字의 聲符의 音은 引伸關係로 派生된 字의 關係를 알게 해 준다.

益/yi/(익) 溢/yi/(일)

益은 《說文》에 의하면 饒也。从水、皿。皿，益之意也。伊昔切 /yi/(넉넉한 것이다. 水를 따르고 皿을 따른다. 그릇에 물이 가득한 것을 말한다.) 즉 풍족하여 남는 것이다. “水”가 “皿”위에 있는 것을 따르는 회의자이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넘쳐흘러 나온다는 의미이다. 溢은 器滿也。从水益聲。夷質切 /yi/(그릇이 가득 차는 것이다. 水를 따르고 益聲이다.) 즉 그릇에 물이 가득차서 넘친다는 의미이다.

두 자는 의미가 서로 같은데 본래 益이 ‘물이 넘친다’는 의미의 글자였으나 의미가 인신되어 ‘남는다. 여유있다’의 의미를 갖게 되자 본래 물이 넘친다는 의미의 자를 만들기 위해 益에 의부인 氵를 더하여 ‘물이 넘친다’는 의미의 溢을 만들었다. 益의 본의가 ‘물 넘치다’이지만 본의와 인신의를 구분해주기 위해 본의를 나타내는 자를 나중에 만들었으므로 溢은 후기본자라 한다. 益과 溢은 본래 하나의 글자였다가 두 개의 글자로 분화된 것이므로 두 글자는 의미에도 관계가 있으며 字音에도 관계가 있다.

昏/hūn/ 婚/hūn/

昏은 《說文》에 의하면 日冥也。从日，氏省。氏者，下也。一曰：民聲。呼昆切 /hūn/(날이 어두워진 것이다. 일을 따르고 氏를 따르는데 氏의 자형이 일부 생략되었다. 氏라는 것은 낮다는 뜻이다. 혹은 氏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民聲이라 하였다.)이라 하였는데 즉 昏은 태양이 땅에 떨어지는 때인 저녁을 말한다. 日과 氏의 생략된 자형을 따르는 회의자인데 氏는 ‘떨어지다, 낮다’ 의미이다.

婚은 《說文》에 의하면 婦家也。《禮》：娶婦以昏時，婦人陰也，故曰婚。从

102) 王 力, 《王力古漢語字典》, 中華書局, 2005. 1255~1256쪽.

女, 从昏, 昏亦聲。呼昆切 /hūn/(장가드는 것이다. 《禮》에는 부인을 얻은 때는 저녁에 하였고 아내는 陰이다. 그래서 婚이라한다. 女를 따르고 昏을 따르는데 昏은 亦聲이다)이라 하였다.

湯可敬 《說文解字今釋》에 의하면 婚은 아내의 집이다. 禮規에 정하기를 아내에게 장가드는 것은 황혼(黃昏)인 때에 하니 여인은 陰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婚이라고 한다. 女와 昏을 따른 회의자이고 昏은 聲을 나타낸다 하였다.¹⁰³⁾ 그리고 王力 《古漢語字典》에 의하면 昏은 본의가 저녁을 나타내지만 결혼의 의미도 있다 하였다.¹⁰⁴⁾

따라서 昏은 인신으로 인한 一字多義字인데 한동안 昏으로 저녁의 의미와 결혼의 의미를 다 나타내다가 이 음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미부인 女를 첨가하여 ‘결혼하다’의 음의를 가진 婚을 분화한 것이다. 혼과 혼은 본래 하나의 글자이었는데 인신되어 나뉘어졌으므로 두 글자는 의미와 음에 연관성을 가진다.

暴/pù/ 曝/pù/

暴(暴)은 《說文》에 의하면 晞也。从日, 从出, 从収, 从米。古文暴, 从日, 鹿聲。薄報切 /pù/ (햇볕에 쬐는 것, 말리는 것이다. 日과 出과 収와 米를 따른 회의자이다. {鹿火日}은 古文 暴 자로 日을 따르고 鹿聲이다.)라 하였다. 曝은 《說文》에 보이지 않는다.

暴은 원래 본의가 ‘햇볕에 쬐는 것, 말리는 것인데’ 의미가 인신되어 ‘사납다, 난폭하다’가 되었다. 따라서 暴이라는 하나의 자형에 본의와 인신의 뜻을 모두 포함하게 되어서 의미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에 원래 본의를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 필요가 생겨서 暴에 義符인 日을 첨가하여 曝을 만들었다. 曝을 만들어서 본의를 나타낸 이후에 暴은 引伸義인 ‘사납다’만 사용되었다.

즉 본의와 인신의 뜻을 구분하기 위해 두 글자를 분화한 것이므로 曝은 暴과 의미에 연관성이 있고, 본래 한 글자였기 때문에 자형에도 연관성이 있으며 음도 暴과 /pù/로 같다.

103)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5, 1746쪽.

104) 王力, 《王力古漢語字典》, 中華書局, 2005, 429쪽.

𪔐/cán/,/jiàn/ 淺/qiǎn/,/jiàn/ 𪔑/jiàn/ 賤/jiàn/

𪔐은 《說文》에 “賊也。从二戈。《周書》曰：“𪔐𪔐巧言。” 昨千切”/cán/(해치는 것이다. 두 개의 戈를 따른다. 《周書》에 ‘남에게 환심을 사려는 말’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단옥재는 𪔐과 殘은 음과 義가 같다고 하였다.¹⁰⁵⁾ 𪔐은 갑골문에 자형이 두 개의 병기이므로 전쟁의 戰의 初文이라하였다.

殘은 《說文》에 “賊也。从歹𪔐聲。昨干切”/cán/(해치는 것이다. 歹을 따르고 𪔐聲이다.)라 하였다.

淺은 《說文》에 不深也。从水, 𪔐聲。七衍切 /qiǎn/ (물이 깊지 않은 것을 말한다. 水를 따르고 𪔐聲이다.)라고 하였고 𪔑은 淺也。从人𪔐聲。慈衍切 /jiàn/(얕은 것이다. 人을 따르고 𪔐聲이다.)라 하였으며 賤은 賈少也。从貝, 𪔐聲。才綫切 /jiàn/ (가격이 싼 것을 말한다. 貝를 따르고 𪔐聲이다.)라 하였다.

淺/qiǎn/,/jiàn/, 𪔑/jiàn/, 賤/jiàn/세 자들은 모두 성부에 𪔐을 가지고 있다. 𪔐은 《說文》에서 말하는 본의는 ‘해치다’이고 갑골문의 본의는 ‘전쟁’이기 때문에 ‘낮다, 적다’라는 의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미를 계속하여 인신하여 파생하면 ‘해치다 → 손해 → 적어지다’ 등으로 의미 파생이 가능하여 𪔐이 字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낮다, 얕다, 적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𪔐은 두 개의 병기를 그린 상형자이고 淺, 𪔑, 賤은 형성자이다. 문자는 간단한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복잡하게 나누어지는 것이므로 이 세자들은 𪔐에 水, 人, 貝를 첨가하여 나타낸 글자들이다. 𪔐에서 引伸 分化하여 나왔을 것이다.

따라서 淺/qiǎn/,/jiàn/, 𪔑/jiàn/, 賤/jiàn/세 자들은 ‘물이 얕다’, ‘옷을 안 입은 맨 몸’, ‘돈이 적다’의 의미를 가지는데 의미뿐만 아니라 음도 같거나 비슷하다.¹⁰⁶⁾

105) 許慎選.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浙江古籍出版社, 1998, 632쪽.

106) 𪔐을 성부로 가진 자로 이 외에 灑(물을 흩뿌리다), 鏝(쇠가 작은 것) 殘(잔해), 穰(작은 술잔) 등이 있는데 이것들도 모두 ‘낮다,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형성자의 성부의 음과 의미에 대해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인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北宋의 王子韶(聖美)이고 그의 견해를 우문설이라 한다. 형성자의 성부가 오른 쪽에 있기 때문에 우문설이라 함.

陳/chén/ 陣/zhèn/

陳은 《說文》에 의하면 宛丘, 舜後媯滿之所封。从自, 从木, 申聲。直珍切 /chén/ (사방은 높고 중앙은 낮은 산언덕이다. 舜 임금의 후예인 媯滿이 토지를 분封받은 곳이다. 自, 木을 따른 회의자이며, 申聲이다.)라 하였고 陣은 《說文》에 보이지 않는다. 단 《說文》에 陳이 있는데 剗也。从支陳聲。直刃切 /chén/, /zhèn/ (진열하는 것이다. 支를 따르고 陳聲이다.)라 하였다. 《古漢語字典》에서는 陣은 陳, 陳이라 하며 군대의 대열이라 하였다.¹⁰⁷⁾

즉, 陣은 《說文》에 보이지 않고 《古漢語字典》에만 보이므로 다른 자보다 나중에 나온 자일 것이다. 또한 그 의미가 (군대의 대열) 하나 밖에 없으므로 다른 자에서 분화되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陳은 본의는 《說文》에 따르면 나열과 상관이 없는 지역이름이다. 그러나 나중에 陣의 의미로 가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본의보다는 ‘진열하다, 나열하다/chén/’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고 여기에서 의미가 인신되어 ‘진을 치다/zhèn/’의 의미도 가지게 되자 두 글자로 구분하기 위해 ‘진을 치다’는 의미인 陣/zhèn/을 만들었다.¹⁰⁸⁾ 陳/chén/과 陣/zhèn/은 가차와 인신의 방법이 모두 사용된 분화자이다.

2) 假借 分化字

언어의 확장과 변화의 속도는 빠르지만 문자를 그 속도에 맞게 만들어 내기 어렵다. 언어의 새로운 대상(개념, 물건)이 생기고 그것을 인간이 인식하면 그것에 맞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 이름에 맞는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를 동일 사회인들이 모두 인정 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되어 사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다른 자형을 빌려서 사를 나타내어야 하는데 다른 자를 빌릴 때는 사의와 관계가 있고 음에 관계가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하여 빌리게 된다. 만일 음의 모두에 관계를 가진 자가 없다면 음을 위주로 하여

107) 위의 책 1584쪽.

108) 李相機, <古漢語의 通用字에 대한 考察>, 인문과학, 1998, 271쪽.

음이 같거나 음이 비슷한 자형을 빌려 사를 나타내는데 자형을 빌렸으므로 가차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용된 가차자는 본래 가차되기 전의 음과 의와 가차된 음과 의를 일정기간 모두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러한 一字多音義 현상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글자를 분화하게 된다. 다음은 가차로 분화한 자들의 예이다.

耆/qí/ 嗜/shì/

耆는 《說文》에 의하면 老也。从老省，旨聲。渠脂切/qí/(老人이다. 老의 생략된 形을 따르고 旨聲이다)라 하였고, 嗜는 嗜欲, 喜之也。从口耆聲。常利切/shì/(즐기는 것이다. 口를 따르고 耆聲이다)이라 하였다.

본래 耆는 노인이라는 뜻이지만 '즐기다'라는 詞와 音/shì/은 있으나 그것을 나타낼 字가 없었기 때문에 耆를 假借하여 '즐기다'라는 詞를 나타냈는데 假借하여 나타낸 字에 意味부를 첨가하여 '즐기다'를 나타내는 嗜를 만들었다. 假借할 때는 독음이 반드시 완전히 서로 같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假借된 글자와 假借한 글자 사이에는 音의 차이가 발생하고 假借字에 意味符를 첨가하여 만든 字 또한 音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耆에 여러 音義를 갖게 되므로 嗜를 분화하였다.

然/rán/ 燃/rán/

然是 《說文》에 의하면 燒也。从火，艸聲。難，或从艸、難。如延切 /rán/(불타는 것이다. 火를 따르고 艸聲이다. 難라 하기도 하는데 艸를 따르고 難을 따른다)이라 하였으므로 然是 연소하는 것이다. 火를 따르고 艸聲이며 然是 또 難으로도 쓰는데 艸를 따르고 難聲이다. 燃은 《說文》에 보이지 않는다. 王力 《古漢語字典》에 의하면 燃은 '연소하다'라 하였다.¹⁰⁹⁾

《說文》에 燃이 없고 王力 《古漢語字典》에는 있으므로 燃은 然을 분화하여 생성된 자임을 알 수 있다. 然是 本義가 연소하다인데 가차되어 '이리하다, 그리

109) 王 力, 《王力古漢語字典》, 中華書局, 2005, 669쪽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가차의와 본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음을 위주로 하여 가차한 것이다. 然이 가차된 후에 가차의로 자주 사용되자 본의를 나타내는 자를 만들기 위해 의미부인 火를 첨가하여 燃을 만들었다.

舍/shě/ /shè/ 捨/shě/

舍는 《說文》에 의하면 市居曰舍。从宀、中，象屋也。口象築也 始夜切 /shè/ (손님이 머무는 곳이다. 스를 따르고 中을 따르는데 집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구는 건축물을 그린 것이다.)라 하였다. 捨는 《說文》에 의하면 釋也。从手舍聲。書治切 /shě/(풀어버리는 것이다. 손을 따르고 舍聲이다)라 하였다.

《說文》에 의하면 舍의 의미는 '손님이 거주하는 곳'을 말하고 捨는 '풀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說文》은 본의를 나타낸 것이고 王力 《王力古漢語字典》에서는 사에 '집'의 의미와 '버리다'는 의미를 모두 가졌다 하였다.¹¹⁰⁾ '집'이라는 의미와 '버리다'는 의미는 의미상에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데 이것은 '버리다'는 의미의 詞를 나타낼 글자가 없어서 집이라는 의미의 舍를 가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舍에는 가차로 인하여 一字多音義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두자의 音義 혼란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扌를 첨가한 捨를 분화하였다.

須/xū/ 𦉰/xū/

《說文》에 의하면 須는 面毛也。从頁，从彡。凡須之屬皆从須。相俞切 /xū/(얼굴에 난 털이다. 수를 따르고 수를 다르는 회의자이다.)라 하였고 𦉰는 《說文》에 자형은 頰라 나와 있는데 待也。从立須聲。相俞切 /xū/(기다리는 것이다. 立을 따르고 須聲이다)라 하였다. 王力 《王力古漢語字典》에는 須에 '수염'의 뜻과, '기다리다'는 뜻과 '필요하다'의 뜻 등 여러 뜻이 있다.¹¹¹⁾

須의 본의는 '수염'인데 수염과 '기다리다, 필요하다' 등은 의미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은 본래 須로써 음이 같은 여러 의미의 자들로 가차하였음을 알 수

110) 위의 책 1026쪽

111) 위의 책 1642쪽.

있다. 이렇게 가차를 자주 하다보면 須에는 여러 의미들이 내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音義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바 ‘기다리다’의 의미를 가진 甞를 나타내기 위해 立을 첨가한 甞를 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胃/wèi/ 謂/wèi/

胃는 《說文》에 의하면 穀府也。从肉；囙，象形。云貴切 /wèi/(胃는 곡물을 소화시키는 臟腑이다. 肉을 따르고 囙은 胃의 형상을 본뜬 것이다)라 하였고 謂는 報也。从言胃聲。于貴切 /wèi/(알리는 것이다. 言을 따르고 胃聲이다)라 하였다. 구석규는 云謂의 謂/wèi/는 본래 자형이 없어서 발음이 같은 胃/wèi/를 가차하여 나타내었다가 후에 言을 덧붙여 謂를 만들었다 하였다. 胃와 謂는 《說文》에 있지만 서한 전기에 베긴 죽서·백서에는 여전히 謂를 胃로 빌린 것이 많다 하였다.¹¹²⁾

女 /nǚ/ 汝/rǚ/

女는 《說文》에 의하면 婦人也。象形。王育說。尼呂切 /nǚ/(부인이다. 상형이다. 王育의 설이다)라 하였고 汝는 水。出弘農盧氏還歸山，東入淮。从水女聲。人渚切 /rǚ/(물이다. 弘農郡 盧氏縣 還歸山에서 흘러 나와 동쪽의 淮河로 유입된다. 水를 따르고 女聲이다)라 하였다. 王力 《王力古漢語字典》에는 女는 여자의 뜻과 너, 너희들의 뜻이 있는데 汝와 통가이고, 汝는 물 이름의 뜻과 너라는 뜻이 있다 하였다.

女와 汝는 모두 이인칭의 ‘너’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는데 女와 汝는 모두 본의가 이인칭의 ‘너’가 아니므로 이 두 글자들은 모두 가차로 사용된 것이었다. 그런데 女는 춘추이전의 문헌에 주로 가차하였고, 춘추전국 시대에는 女와 汝를 모두 병용하였다가 전국시대와 진한 이후의 문헌에는 汝만을 사용하였다.¹¹³⁾

112) 裘錫圭, 《中國文字學》, 신아사, 2001, 302쪽

113) 李相機, <古漢語의 通用字에 대한 考察>, 인문과학, 276~277쪽.

求/qiú/ 裘/qiú/

求是 《說文》에 字形이 보이지 않는다.

裘는 《說文》에 皮衣也。从衣求聲。一曰象形，與裘同意。巨鳩切 /qiú/(가죽옷이다. 衣를 따르고 求聲이다. 혹은 상형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裘와 同義이다.)라 하였다. 《說文解字今釋》에서는 求是 裘의 고문이라 하여 두 자는 같은 글자라 하였다.

즉, 求是 裘의 본의가 가죽 옷인데 ‘구원하다’의 의미로 가차되어 사용되어 求에 본의(가죽 옷)와 가차의(구원하다)가 병존하게 되자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求에 의미부인 衣를 첨가하여 본의를 나타내는 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자는 본래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자이지만 음이 같아 두 개의 의미가 하나의 자형에 실현된 것이고 이것을 다시 두 개의 자형으로 분리 한 것이므로 두 자형은 외형상 유사성을 보이고 의미에는 관계가 없으며 음에는 같거나 비슷한 관계를 보인다.

4. 방언음¹¹⁴⁾ 반영

言語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어음이 變化하기도 하는데 形聲字는 소리를 나타내는 聲符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성자가 만들어질 당시의 음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 형성자를 만들어낸 지역의 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형성자들은 때로는 표준음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음과 지역의 음을 표기하기 위해 기존의 문자에 해당 음을 가진 성부를 첨가하기도 하고, 또는 해당 음을 성부로 하는 글자를 새로 만들기도 한다.

114) 일반적으로 방언이라하면 지역음만을 떠올리는데 지역음은 방언의 협의의 개념이다. 방언의 개념을 넓게 보면 지역방언 뿐만 아니라 시대방언과 사회 계층방언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시대방언과 지역방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鑑/jiàn/ 鏡/jìng/

鑑은 《說文》에 大盆也。一曰:(監諸)[鑑, 諸也], 可以取明水於月。从金, 監聲。革懺切 /jià/(대야¹¹⁵)이다. 혹은 監諸라고도 하는데 달 아래서 명수(이슬)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이 있다. 金을 따르고 監聲이다.)라 하였고, 鏡은 景也。从金, 竟聲。居慶切 /jìng/(비추는 것이다. 金을 따르고 竟聲이다)라 하였다.

鑑과 鏡은 모두 거울의 意味를 가진다. 鑑은 선진 시기의 문헌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鏡은 전국 말기 문헌에 처음으로 출현하여 진한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되었다.¹¹⁶⁾

王筠은 《說文釋例》에서 ‘鏡, 鑑雙聲, 字隨語變(鏡과 鑑은 雙聲으로 글자가 말을 따라 變化하였다)’라고 하여 이들의 생성 過程에 어음 문제가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上古音을 보면 鑑과 鏡은 성모가 모두 見母로 雙聲일 뿐만 아니라 鑑은 開口二等의 談部字이고 鏡은 開口四等の 陽部字인데 陽部와 談部는 主要元音이 모두 [a]로 通轉 현상이 일어난다.¹¹⁷⁾ 따라서 동일 의미를 가진 서로 다른 자의 음을 통해 시기별 음을 알 수 있다.

寺/sì/ 特/tè/ 等/děng/

特은 《說文》에 朴特, 牛父也。从牛寺聲。徒得切/tè/이라 하였고 等은 齊簡也。从竹从寺。寺, 官曹之等平也。多肯切/děng/. 寺는 廷也。有法度者也。从寸之聲。祥吏切/sì/.라 하였다. 特은 形聲字로 寺를 聲符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아선 寺와 特자 사이에 어떠한 음의 연관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와 등은 고음이 상근하여 聲符로 삼은 것이다.¹¹⁸⁾ 현대음과 비교하면 음이 많이 변한 것이지만 寺를 聲符로 삼은 等과 特에는 고음이 반영되어 있다.¹¹⁹⁾

115) 鑑은 갑골문 자형을 보면 사람이 그릇을 내려다 보고 있는 형상이다. 鑑은 監에 金을 첨가하여 보는 대상물(거울)을 의미하는 자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116) 이영주 《漢字字義論》 2002, 214쪽

117) 王力の 上古音價를 따르면 鑑은 [keam]이고 鏡은 [kiang]이다.

118) 장기택 <形聲文字考> 공주교육대학교 1992 43쪽

119) 현대 中國에서는 이미 입성은 소실되어 버려 알기 어렵게 되었지만, 中國의 방언과 한국, 월남 漢字音에는 입성이 보존되어 있어 上古音의 추정에 좋은 자료가 된다. 입성운이란 운미가/-p, -t, -k/와 같이 폐쇄음으로 끝난 것을 가리킴. 李敦柱《漢字學總論》

또한 외부와의 교류로 인해 새로운 어휘들이 중국어 안에 들어 올 때 그것을 위한 전용자를 계속하여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때 가장 편한 방법이 바로 假借를 통한 音譯이다. 이러한 음역자들은 그 어휘가 수입될 당시의 음과 가장 가까운 음으로 假借할 것이므로 어휘 수입당시의 時代音을 알 수 있게 해준다.

多/duō/ 夥/huǒ/

多是 《說文》에 “重也。从重夕。夕者，相繹也，故爲多。重夕爲多，重日爲疊。得何切。” /duō/(중복되는 것이다. 夕이 중첩된 것을 따른다. 夕은 相繹¹²⁰⁾이다. 夕이 중첩되었으므로 多이다. 일이 중첩되면 疊이다)라고 하였다.

夥는 《說文》에 齊謂多爲夥。从多果聲。乎果切/huǒ/ (齊에서는 多를 夥라한다. 多를 따르고 果聲이다)라 하였다. 《방언》에는 凡物盛多 謂之寇. 齊宋之郊, 楚魏之際曰夥(물이 번성하고 많은 것을 寇라고 한다. '齊와 宋의 근처와 楚, 魏의 사이에서는 夥라고 한다)라 하였다.¹²¹⁾

즉, 일반적으로 多로써 ‘많다’라는 뜻을 나타냈으나 ‘齊’ 지방에서는 多/duō/를 발음할 때의 자기 지역의 음/huǒ/과 달라서 그 지역음인 夥를 첨가하여 자기 지역음을 나타내는 자를 새로 만든 것이다. 形聲字의 聲符의 음으로써 지역 방언음을 알 수 있게 한다.

占/zhān/ 鑽/zuān/(鈔)/chān/,/zhān/

鈔는 鑽의 간화자이다. 鑽은 독음이 /zuān/이고, 鈔는 독음이 /chān/,/zhān/이다. 鑽은 간화하여 鈔의 자형을 가지고 있고, 鈔는 성부로 占/zhān/을 가지고 있는데 鈔의 성부가 占인 이유는 간화자 鈔의 만든 지역 사람들은 鑽을 /zuān/이라 하지 않고 /zhān/이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방의 상해 지역에서는 占(점)과 鑽(鈔)이 동음이므로 과거에 시계 가게에서 왕왕 ‘十七鑽’을 ‘十七

120) 단옥재의 설명이다. 相繹은 서로 끌어당겨 끝이 없는 것이다. 실을 뽑아내는 것을 繹이라 한다. 석과 역은 棼운이다. 許慎選,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浙江古籍出版社, 1998, 316쪽

121) 진광호 <說文解字形聲字結句考> 중국어문학 재인용

占’이라고 썼다. 鑽의 간화자 鈞은 상해지역의 사람들이 만들어 냈을 것이다.¹²²⁾

鈞의 성부인 占은 보통화로 읽으면 /zhān/이기 때문에 鈞(鑽)/zuān/과 성모와 운모가 모두 다르지만 위의 지역 사람들이 읽는다면 발음이 똑같아 진다. 즉 일부 형성자는 지역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舟/zhōu/ 船/chuán/ 航/háng/

위의 세 글자들은 모두 배를 나타내는 글자들이다. 자형을 보면 모두 舟를 가지고 있고 聲符로서 鉛과 亢을 가지고 있다.

舟는 《說文》에 “船也。古者，共鼓、貨狄，剡木爲舟，剡木爲楫，以濟不通。象形。凡舟之屬皆从舟。職流切。”(배이다. 옛날에 共鼓와 貨狄라는 두 사람이 나무를 파서 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상앗대를 만들어 통과할 수 없는 물줄기를 건넜다. 배의 형상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다.

船은 《說文》에 “舟也。从舟，鉛省聲。食川切。”(배이다. 舟를 따르고 鉛聲인데 鉛의 자형의 일부인 金이 생략되었다.)라고 하였다.

航의 자형은 《說文》에 보이지 않지만 航이 있는데 “方舟也。从方亢聲。《禮》：天子造舟，諸侯維舟，大夫方舟，士特舟。胡郎切”航은 두 척의 배가 서로 나란히 하는 것이다. 方을 따르고 亢聲이다. 예법 규정에 천자는 (물을 건널 때) 배와 배를 이어 곧장 맞은 편 언덕에 이르고, 제후는 밧줄을 써서 4척의 배를 연결시키고, 대부는 나란히 두 척의 배를 연결시키고, 선비는 한 척의 배를 쓴다. 서현본에 “지금 세속에서 따로 航자를 쓰나 옳지 않다”고 하였다.)¹²³⁾라 하였는데 航(胡郎切/háng/)과 字音과 字義가 같다.

舟와 船에 대해 단옥재는 “古言舟，今言船”(옛날에는 舟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에는 船이라한다)¹²⁴⁾고 하였는데 古字, 今字라 하지 않고 古言, 今言이라 하였으므로 ‘배’를 지칭하는 詞의 音이 바뀐 것이다. 즉 船은 舟를 義符로 그대로 두고 음이 바뀔 그 당시의 음인 鉛을 첨가한 것이므로 船으로써 배를 지칭하는 音이

122) 裘錫圭, 《中國文字學》, 신아사, 2001, 287쪽

123)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5, 1163쪽 주석 참조.

124) 許慎選,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浙江古籍出版社, 1998, 403쪽.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方言》에서는 “舟，自關以西謂之船，自關以東或謂之舟，或謂之航”(舟를 관서 지역에서는 船이라하고 관동 지역에서는 舟라고 하거나 航이라고 한다.)¹²⁵⁾고 하였다. 《方言》의 설명은 단옥재의 설명과 다르지만 《方言》의 설명을 따르게 되면 舟는 표준음이고 船과, 航은 지역 방언음인데 자기 지역의 음으로 ‘배’를 나타내는 詞를 표시해야 하므로 舟를 의부로 그대로 두고 자기 지역음인 船과 尢을 첨가하여 자기 지역의 음을 나타내는 자를 새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단옥재의 설이 맞는지 《方言》의 설이 맞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 방언이건 시대 음이건 달라진 것(今音 또는 地域音)을 기존의 문자에 달라진 음을 첨가하여 나타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의 음은 시대음과 지역음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5) 이영주, 《漢字字義論》,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12쪽, 재인용.

V. 結論

漢字는 갑골문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30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文字이다. 그 긴 역사만큼 漢字는 形 · 音 · 義의 모든 方面에서 많은 變化를 거쳐 發展하여 왔다. 이러한 漢字의 變化와 발전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漢字가 表의문자이기 때문이다.

表의문자는 그림에서 시작한 문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형에 하나의 자의와 자음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것은 어휘가 확장할 때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하므로 글자 수의 증가를 초래 하였다. 글자 수가 어휘 수만큼 증가하게 되면 그 글자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더 이상 글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漢字는 表의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결과 形성자가 증가하였고 심지어 形성자는 전체 漢字에서 80~90%에 달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文字의 生成과 發展단계의 여섯 단계에도 부합한다.

漢字가 變化 할 때는 漢字의 外形상 첨가, 대체, 변형, 생략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漢字의 外形상 變化는 漢字를 여러 자형을 갖게 하여 글자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𠂔에 성부인 止를 첨가하여 齒를 만들고, 獸의 𠂔을 守로 대체하고, 母의 점 두 개를 세로획으로 변형하여 毋를 만들고, 羊의 아래부분을 생략한 후 女와 결합하여 姜을 만들었다.

새로운 문물에 따라 漢字를 계속하여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을 다 일일이 익히고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문자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引伸과 假借였다. 人신과 가차는 지금까지 漢字의 최종 발달 단계인 形성자를 만들어내게 하였다.

人신은 하나의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人신의가 생기면 그것을 따로 나타낼 글자가 없어서 처음에는 하나의 글자로 본의와 人신의를 모두 나타내어 사용한다. 그러나 처음의 본의와 人신의가 하나의 자형에 혼재되면 자음과 자의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이 글자를 분화하는데 예를 들면

解와懈가 그러하다. 解/jiě/는 본래 소의 뼈와 살을 나누는 것인데 ‘뼈와 살을 나누다’가 ‘풀어지다’의 의미로 인신되고 ‘풀어지다’의 의미는 懈/xiè/‘마음이 풀어지다’의 의미로 인신이 되었다. 그래서 解에 本義와 引伸義가 모두 포함되어 사용되다가 이 둘을 나누어 분화하여 하게 되는데 본래 하나의 글자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자형에도 유사성을 보이고 의미에도 유사성을 보이며 자음에도 같거나 비슷하다는 관계를 보이게 되었다.

가차 또한 기존의 문자를 빌려서 새로운 詞를 나타내는 것인데 음을 위주로 하여 가차를 하였다. 가차한 글자와 가차된 글자는 하나의 자형으로 실현되고 하나의 자형에 가차한 글자의 의미와 가차된 글자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게 되어 의미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두 글자를 분화하였는데 이 두 글자는 가차로 인해 분화되었기 때문에 음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관계성을 보이게 되었다. 예를 들면 耆/qí/는 노인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즐기다’의 의미인 글자가 없어서 耆를 빌려서 嗜/shì/‘즐기다’의 의미를 나타내었는데 耆라는 글자 하나에 두 개의 의미를 갖게 되고 또한 두 개의 음을 갖게 되어 음과 의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두 글자를 분화하였다. 따라서 두 글자는 음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음에 관계성을 갖게 되었다. 이렇듯 인신과 가차는 한자가 표의문자이면서 표음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한자는 이렇게 표음의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분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한자들의 음을 살펴 한자가 변화해 온 모습을 역으로 알 수 있었는데 즉 한자의 음으로써 異體字를 판별하고 同形字를 판별하였으며 同源字도 판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豔/yàn/과 艷/yàn/, 塵/chén/과 尘/chén/, 弔/diào/와 吊/diào/, 響/xiǎng/과 响/xiǎng/, 등은 서로 자형이 다르지만 의미가 같고 음이 같기 때문에 본래 같은 글자이나 자형만 다른 이체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鉞(창 사)/shé//shī/, 鉞(저울추 타)/tuó/, 鉞(금속원소 탈륨 타)/ta/처럼 원래 다른 글자인데 하나의 자형으로 실현되는 동형자도 그 글자들의 의와 음으로써 우연히 같아진 것인지, 인신으로 인한 글자인지, 혹은 가차로 인한 글자인지를 알 수 있었다. 우연히 같아진 글자는 의미와 음에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인신으로 인한 글자는 의미에 관계가 많고 음에도 관계가 있었으며, 가차로 인한 글자는 의미에는 관계가 없고 음에만 관계가 있었다. 이처럼 한자의 음은

동형자를 판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자가 분화하여 오늘날에는 글자 수가 많아졌지만 이러한 글자들 중 본래 처음에 같은 근원을 가진 글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동원자라 하였다. 이러한 동원자는 형체보다는 의미와 음이 같거나 비슷해야만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한자의 음으로써 서로 다른 글자들이 동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晶과 星은 동원자인데 두 글자가 동원자인 이유는 晶이 본래 하늘의 별빛이 반짝이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로서 음이 /jīng/이고, 星 또한 하늘의 별, 별빛을 나타내는 글자로서 음이 /xīng/인데 /jīng/과 /xīng/은 운미가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자의 음으로써 이체자, 동형자, 동원자를 판별할 수 있었다.

형성자의 증가는 한자에 표음의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한자의 독음을 유추할 수 있어서 한자를 사용하고 익히는데 많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형성자들은 같은 성부를 가지면서도 성부의 음이 그 형성자의 음과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淳, 醇, 鎔, 鯨은 모두 음이 /chún/인데 이 글자들의 聲符字는 享으로 음은 /xiǎng/이다. /chún/과 /xiǎng/은 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음은 시간에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 것이 아니고 원래 각각 다른 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淳, 醇, 鎔, 鯨의 성부는 享의 자형을 취하고 있지만 성부의 享은 享/xiǎng/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본래 淳, 醇, 鎔, 鯨의 성부는 본래 囪이었는데 한자의 발전 과정에서 享으로 변화가 된 인데 이렇게 형성자의 성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음은 형성자의 성부자의 음 비교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의 음은 동성부이음자를 판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자의 음은 인신분화자와 가차분화자를 산생해 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의미의 인신은 처음의 본의에서부터 성질, 작용, 범위, 장소, 등 여러 방향으로 의미가 조금씩 변화하여 인신되고 이렇게 의미를 인신할 때는 음이 같거나 음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인신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昏은 어둡다는 의미의 詞인데 결혼을 어두울 때하고 여자가 陰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혼하다'의 /hūn/과 '어둡다'의 /hūn/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이것은 달리 보면 /hūn/이라는 음에 두 개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자의 음은 인신분화자를 산생해 낸다고 할 수 있다.

가차분화자 역시 음을 위주로 하여 가차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음에 두 개의

의미를 포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然이 그러하다. 然은 본래 ‘불타다’의 뜻인데 ‘그러하다’로 가차되어 자주 사용되었다. 따라서 ‘불타다’의 然과 ‘그러하다’의 然이 음도 같고 자형도 같아서 혼란이 오게 되어 두 글자를 분화하게 되었다. 즉 한자의 음은 가차분화자를 산생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形聲字의 聲符와 聲符의 變化로 서로 다른 時代의 音을 알거나 방언의 音을 알 수도 있었다. 예를 들면 鑑과 鏡, 多와 夥가 그러하다. 鑑과 鏡은 모두 ‘거울’을 나타내는 글자들인데 鑑은 선진시기에 널리 사용되었고 鏡은 전국 말기 문헌에 처음 출현하여 진한 이후에 널리 쓰였다. 두 글자의 음은 /jiàn/과 /jìng/으로 쌍성이고 상고시대 음이 開口二等의 談部字와 開口四等の 陽部字의 글자이다. 談部와 陽部는 주요원음이 모두 [a]로 통전현상이 일어나므로 두 글자는 본래 하나의 詞인데 시대의 음이 달라지자 그 시대의 음에 맞게 성부가 監에서 竟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자의 음은 시대의 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또한 多是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은 /duō/이다. 그러나 齊와 宋 등의 지역에서는 ‘많다’를 의미하는 말을 할 때 /duō/라고 하지 않고 /huǒ/라고 하기 때문에 多에 자기 지역의 音인 果를 첨가하여 夥를 만들었다. 이것으로 지역 방언음을 반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漢字는 表意文字에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表意의 機能과 表音의 機能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 중 表音의 機能은 점차 강화되었다. 이것은 表音性이 없는 表意 文字의 한계성을 탈피하기 위한 현상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음과 관계가 있는 引伸과 假借의 방법을 자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形聲字가 대량 생성되었는데 이것은 表音化의 한 과정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한자는 표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한자의 음은 한자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즉 한자의 음은 글자를 판별하게 하고, 글자를 분화하여 산생하게 하기도 하며, 시대와 지역에 다른 음을 반영하기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기의 한자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에서 한자의 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므로 한자를 단순히 표의문자라고만 정의하여 한자의 음의 기능과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參考文獻】

單行本

- 강범모, 《언어 풀어 쓴 언어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 高明, 《中國古文字學通論》, 북경대학출판사, 2005.
- 裘錫圭, 《中國文字學》, 신아사, 2001.
- 《文字學概要》, 商務印書館, 2010.
- 金鎮宇, 《言語의 起源》, 한국문화사, 2007.
- 김진호, 《언어학의 이해》, 역락, 2004.
- 唐蘭 選, 《中國文字學》, 上海世紀出版集團, 2005.
- 党怀兴, 《宋元明六书学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
- 董同龢 譯 《高本漢詩經注釋 上》
- 방성원, 《언어학개론》,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의노트
- 方向東, 《孫詒讓訓詁研究》, 中華書局, 2007.
-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3.
-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內閣版 三經 下》, 성회사, 1973.
- 孫雍長, 《訓詁原理》, 어문출판사, 1997.
- 沈兼士, 《沈兼士學術論文集》, 中華書局, 1986.
- 王力, 《王力古漢語字典》, 中華書局, 2005.
- 王力 著, 李鍾振·李鴻鎮 譯, 《中國言語學史》, 계명대학교출판부, 1997.
- 李敦柱, 《漢字學 總論》, 박영사, 2000
- 李先华, 《说文与训诂语发论稿》, 安徽大學出版社, 2005.
- 이영주, 《漢字字義論》,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李 圃, 《甲骨文文字學》, 學林文庫, 1994.
- 張其昀, 《說文學源流考略》, 貴州人民出版社, 1998.
- 全廣鎮, 《中國文字訓詁學辭典》, 東文選, 2003,
- 趙 誠, 《甲骨文字學綱要》, 中華書局, 2005.

- 周大璞 著 정명수 譯, 《훈고학의 이해》, 동과서, 1997.
-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2.
-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5.
- 黃德寬·陳秉新 著, 하영삼 譯, 《漢語文字學史》, 동문선, 2000.
- 許嘉璐, 《语言文字学论文集》, 商务印书馆, 2005.
- 許成道 外, 《中國語學概論》,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 許慎選.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浙江古籍出版社, 1998.

論文

- 姜玟求, <文字의 位相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碩士, 1999.
- 康惠根, <異體字란 무엇인가?>, 中國學論叢 11輯
- 金國泰, <同形字來源例析>, 吉林師範學院學報, 1991年 2期.
- 金尙源, <漢字의 개혁과 表音文字 체계의 모색>, 중어중문학, 2007.
- 김애영, 김시연, <특수異體字연구>, 중국어문학회, 2002.
- 金殷禧, <古漢字 分化 研究>, 延世大學校 碩士, 2000.
- 김정남, <관점초간 形聲字를 통해 본 漢字의 表音性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2009.
- 김해명, <인신의 파생경로에서 본 훈고학의 용도>, 원우론집, 1983.
- 柳在潤, <說文解字의 六書연구>, 한문교육연구, 1999.
- 朴興洙, <右文說 小考>, 中國學研究 第十二輯, 1997.
- <漢字의 表意性和 表音性에 관한 고찰>, 언어와 언어학28집, 2001.
- 潘福剛, <右文說與聲訓>, 沈陽大學學報 第19卷 第6期,
- 林東錫, <漢語 聲訓論 研究>, 인문과학논총 제30집, 1998.
- 李圭甲, <中國文字의 起源(1)>, 言語(제10호), 1989.
- <再論漢字字體之變化>, 言語(제13호), 1992.
- <同一字族研究>, 중국어문학논집, 1997.
- <漢字의 淘汰 研究>, 中國學論叢(第1輯), 1992.

- 李相機, <中國에서의 漢字의 整理와 簡化에 대한 小考>, 인문과학, 1997.
—— <古漢語의 通用字에 대한 考察>, 인문과학, 1998.
- 李孝定, <漢字의 起源與演變論叢>, 聯經出版事業公司, 1986.
- 任曉威, <形聲字研究綜達>, 吉林大學 碩士, 2007.
- 장기택, <형성문자고>, 공주대 교육대학교, 1992.
- 전광진, <한자의 성질에 관한 제 학설 탐구>, 중국언어연구, 2001.
- 鄭華卿, <鄭樵의 《六書略》研究>, 濟州大學校 碩士, 2006.
- 周效鳳, <同形字探源>, 時代文學, 2009.
- 秦光豪, <說文解字形聲字結構考>, 중국어문학 제12집, 1986.
- 許 壁, <六書와 說文解字>, 人文科學, 1976.
- 洪光勳, <轉注에 대한 종합적 고찰>, 인문논총, 2005.